



WHERE ♥ 법대 15동 301호

WHENE ♥ 2004.02.13. 10a.m

FEMINIST HAPPY HOUR ♥ 마네르바 7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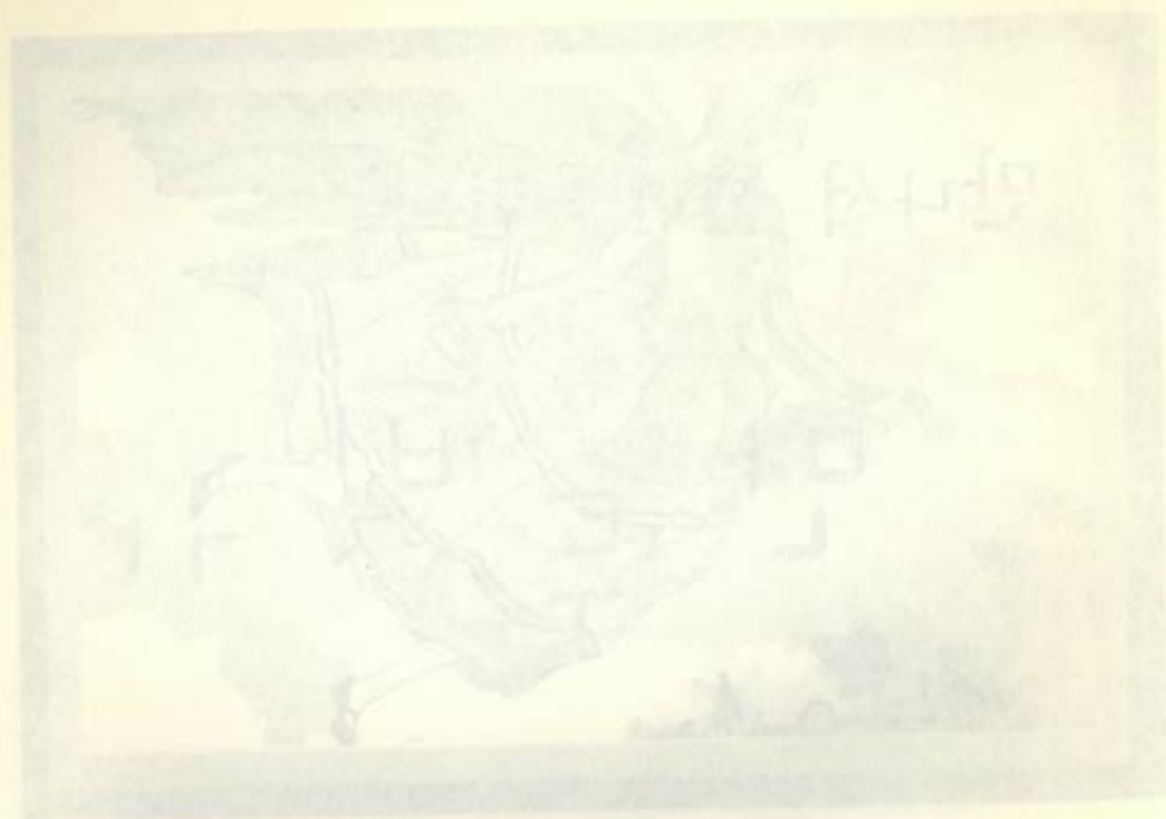


WHERE ♥ 법대 15동 3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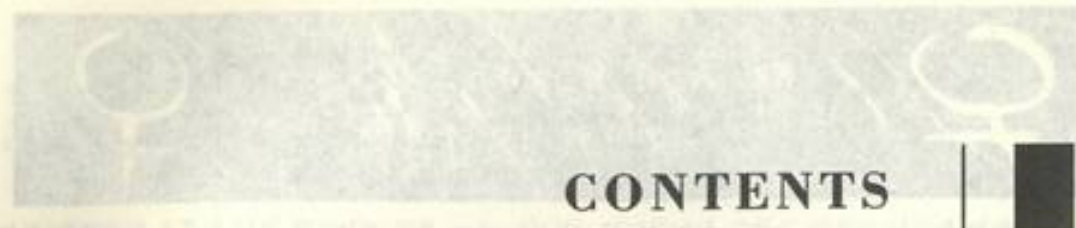
WHENE ♥ 2004.02.13. 10a.m.

FEMINIST HAPPY HOUR ♥ 마네르바 7p.m.





WHERE ♥ LOVE IS
WHEN ♥ LOVE IS
FEMINIST HAPPY HOME



CONTENTS

4	우 [여는 글] We Are WOMEN. 관악여성모임연대
6	우 여성주의 기초 세미나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제안!
16	+ Small Tips For You!
21	우 성학교. 어떻게 할까?
25	우 여성공간 만들기
29	+필을기
31	+ '공간'에 대한 특별한 기대, 여성공간으로서의 여고
33	+ 나와 그녀의 空間
36	+ 여학생과 동거일지
38	+ 여학생 환영제 - 국사세닐
41	+ 농대 여학생 환영제
47	+ 별대 여우여 女友夜
	+ 국사세닐 여학우회모임
49	우 반성폭력. 되짚어 보기
50	+ 문제제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54	+ 농대 동의인다고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거부한다
57	+ 성폭력 사건 공개의 의미
	+ 사건 공개, 그 이후
59	우 새로 생긴 단위들
59	+ 별대 여성주의로 놀자! 놀이책
61	+ 농생대여성연대모임
	+ 도대여 일어서게하자, 국사세닐 여성운동모임 여담(女/餘談)의 과정에 대한 변주



관악여성모임연대(관악여모)는 이름 그대로 관악 내 여성모임의 연대체(連帶體)입니다. 이 점에서 동아리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학교 안에는 많은 여성모임이 있습니다. 성 소모임, 성정치위원회, 여성국, 여성주의 학회, 여성운동체, 여성주의자 연대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진 그곳은 여성주의,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바로 이 자료들을 실제로 활용하게 되실 여러분들이겠죠^^) 과/반 안에서부터 시작된 혹은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모임들이 있고 그 모임의 주체들이 모여 관악여모를 이룬 것입니다.

연대체 안에서는 다른 단위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요즘 이렇게 지내. 이런 것 공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미나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하면서 논의의 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얻어갈 수 있겠죠.

관악여모에서는 각 단위에서 여성주의/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면서 더 큰 행사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관악여모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3월부터 5월까지 새내기맞이 기획사업으로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오피스, 장애여성공감,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강연을 준비하였구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며 자보를 내거나 집회에 가기도 하고 여학생휴게실에서 소문씨와 반전 전시회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이 모 교수 학생 대책위에 결합하여 서명, 선전전 등을 진행하였어요. 성폭력 피해자 역고소 기금마련 장터도 하고 여름 성매매 세미나와 새오피스 활동(이전 기획)도 하였고요. 가을에는 장애여성과 여성노동의 이야기를 다룬 여성제 ‘그녀 안의 나, 내 안의 그녀와 손잡다’를 장애인권연대사업팀과 함께 치루었습니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준비하면서 반성폭력의 문제의식과 학칙의 부족한 점 등을 주제로 한 기획자보를 2학기 내내 붙이고 12월에 학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요.

현재 관악여모에는 인문대여성모임연대(인연), 사회대여성주의연대(사연), 동아리연합회 여성운동모임 언니네(언니네), 법대 여성주의로 놀자! 놀이터(놀이터), 농생대여성연대모임(농대여모), 관악여성주의자치연론 Jouissance(쥬아쌍스)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4년, 단위 Project ‘만두’

소개했듯이 여모는 관악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연대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서로가 운동을 해나가는데 힘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죠. 나아가, 함께 함으로써 서로 나누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단위의 능력만으로는 어려운 일, 전 관악적으로 펼칠 일들은 연대체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구요.

그런데 연대하는 단위들 간에 혹은 여모와 단위들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는 여모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모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만 고민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단위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

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위에도 여모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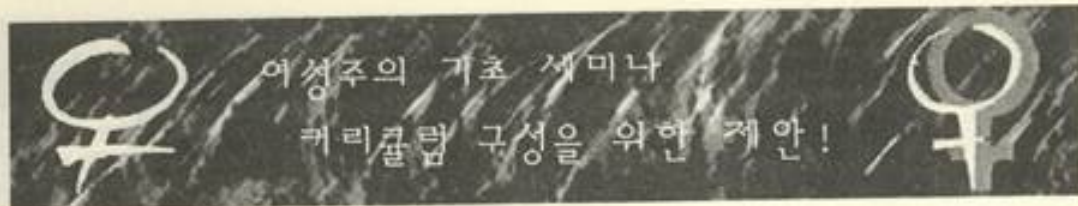
여모에 연대하는 단위들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단위간의 소통과 단위 활성화를 위한 project입니다. 단위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므로 일단은 단위들을 만나보는 일이 첫째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단대에 있는 여성모임들의 상황과 포괄하는 각 과·반·동아리 소모임/학회의 상황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황, 잘 된 사업, 어려운 점,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등과 여모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들어보았죠.

그런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여모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방대하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위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여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를 주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아이템들을 제공하면 단위들이 알아서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각 과반 단위들이 할 수 있는 아이템들과 굵직한 사업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른 단위들의 상황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사람이 부족하다는 등의 다른 단위에서 돕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악여성모임연대를 통해서 단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단위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은 3,4,5월/6,7,8월/9,10,11월/12,1,2월로 쪼개서 도움이 될만한 자료와 사례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단위에서 여성모임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경험한 다른 단위들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두런두런, 만두빚기를 기다려요.”



1.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 성차

「여성과 남성이 똑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 번역집단 히스테리아 옮김, 또하나의문화
 「새여성학강의」 1-5장, 한국여성연구소, 동녘
 「스머프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논제」, 페미니즘과 스머프
 「페미니즘과 종교」 서문, 리타 그로스, 청년사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그 역사와 함의」, 하정옥, 창작과비평사

※각각에서 묶은 심화세미나로 보면 좋은 책

「페미니즘 사상」, 로즈마리 통, 한신문화사

「페미니즘」, 제인 프리드먼, 이후

※같이 보면 좋은 영화

「프린스 & 프린세스」

>> 여성주의와 같이 정의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n명의 여성주의자가 있으면 n개의 여성주의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여성주의는 성차별적인 모든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존의 수많은 이론들이 이성애 기반의 논리적인 체계를 먼저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여성주의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여성들이 겪는 경험과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은폐되고 왜곡되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의 논리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각자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남성적 언어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추구하고, 그렇게 드러난 경험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여성주의입니다.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지점입니다. 어떤 것이 성차인가,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인가 사회적인 것인가 혹은 둘 다인가, 성차가 곧 성차별의 근거가 되는 사회에 대한 비판 등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매우 많으며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심화된 내용의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요. 로즈마리 통의 「페미니즘 사상」에서는 자유주의, 급진주의 등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페미니즘을 구분하고 있고, 제인 프리드먼의 「페미니즘」은 다양한 이슈들에서 나타난 여러 페미니즘적 입장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 가족, 결혼

「여성/몸/성」 9장 '결혼제도와 성', 장윤필화, 또하나의문화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2장, 미셀 바렛, 여성사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조주현 등, 현실문화연구소

「어머니되기의 환상과 실제 그리고 적응」, 변혜정

「자본주의에서의 성모순 ; 결혼을 전제로 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김정희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조주현

※각각에서 묶은 심화세미나로 보면 좋은 책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또하나의 문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또하나의 문화

「현대 가족 이야기」, 조주현, 이가서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권명아, 책세상

※같이 보면 좋은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뮤리엘의 웨딩」, 「길버트 그레이프」, 「싱글즈」/ 「파니핑크」(독신 여성), 「라이딩 위드 보이즈」

>> 이 팀은 (어느 팀이 안 그렇겠냐마는) 이야기할 소재가 무궁무진한 팀입니다. 가족과 결혼이라는 두 주제는 사실상 너무나 많은 가지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미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너무 산발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가닥을 잘 잡아야 할 거예요.

무엇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할 것인가 - 먼저 가족 이데올로기를 깨뜨리는 것.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완고하게 지니고 있는 생각 중의 하나는 '가족의 소중함' 이죠. 집은 한 인간이 고된 바깥 생활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장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에게 있어서 될 수 있는 장소인가? 직장을 다니는 여성은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제2의 일터로 가사일을 해야 하며,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집이 바로 하루 종일 일터라는 현실. 또한 '가족의 소중함' 이라는 '이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족 내의 문제들을 덮어버립니다. 세미나를 하다보면 이런 말이 꼭 나와요. '우리 집만 화목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봐...' '소중한 가족, 화목해야만 하는 가족'의 압박은 가족 내의 여/남 불평등과 억압구조를 비가시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겠죠.

이성애적 가족 이데올로기와 결혼 이데올로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부장제의 핵심고리죠. 여자와 남자는 항상 같이 노닐어야 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 하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결혼은 다른 의미로 요구됩니다. 가부장적 부계제 가족 질서로의 편입=여성의 결혼. '이성에 4인가족'의 정상성은 좀처럼 깨어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소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여성들이 무수히 많죠. 혼자 사는 여성, 여자친구들과 같이 사는 여성, 레즈비언 커플이 함께 사는 경우 등 '가족'은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몸/성」 9장은 결혼제도에 대해 꼼꼼히 짚어주는 커리로 괜찮네요. 「안토니아스 라인」은 재미있긴 한데 워낙 고전적인 영화이니, 최근의 「싱글즈」나 「라이딩 위드 보이즈」와 같은 영화를 함께 보면 이야기거리가 더 풍부해질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제 내 가족은 내가 선택한다! 라는 당당한 한마디를 꺼낼 수 있는 세미나가 되길 바라며.

3. 성폭력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 또하나의 문화

「새여성학강의」 7장 '성과 권력',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동녘

「섹슈얼리티 강의」 9장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10장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

력',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음, 동녘

「여성과 사회」 13호,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신상숙

「성폭력과 여성시민권-운동사회성폭력투리툼기100인위원회 사례분석」 4장 '100인위 게시판에 나타난 성폭력 담론', 박정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여성과 사회」 8호,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배은경

*조각책 목은 심화세미나로 보면 좋은 책

「아주 특별한 용기」, 엘렌 베스 외, 동녘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2장 '성적 권력', 캐슬린 배리, 삼인

「성폭력을 다시 쓴다」, 정희진 외, 한울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수잔 브라이슨, 인향

—2002 인문대 반성폭력 자치규약 개정안

—2002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 개정안

—운동사회성폭력투리툼기 백인위원회 활동백서

*같이 보면 좋은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여성주의 활동은 반성폭력 운동이 아닐까 하네요. 반성폭력 운동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대학이라는 공간에도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반/동아리방에서, 술자리에서, 강의실에서 성폭력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공론화되고 이야기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이 팀에서는 먼저, 성폭력의 개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워낙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지요. 성폭력의 개념을 쫓다 보면, 여학우든 남학우든 성폭력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나누는 것은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후의 논의에서도 그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험담만 이야기하는 것 역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곡된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도 확장할 수 있겠지요.

반성폭력 운동사를 짚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100인위 관련 글과 관악 내 반성폭력 운동사를 보면서 지금 자신이 속한 단위의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 있겠지요. 사실 성폭력 팀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각 세미나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를 확실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4. 성매매

「섹슈얼리티 강의」 6장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원미혜, 동녘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1장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캐슬린 배리 지음, 삼인

「매매춘과 남성지배」, 안드레아 드워킨

*조각책 목은 심화세미나로 보면 좋은 책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막달레나의 집 역음, 삼인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울

4장 '한국 매춘여성운동사', 민경자

5장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사', 정희진

*같이 보면 좋은 영화

「나와 부영이」, 「밀리오레에서 길을 잃다」, 「낮은 목소리」

>> 성매매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들른다는 남자들의 이야기에서부터, 매일 저녁 보는 공중파 TV 드라마 속에서도, 과외하러 가는 집 뒷골목에서도, 신문에서도 성매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매매 합법화, 공창제 등 무수한 담론과 논쟁들 사이에서 '언니'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수많은 구조와 문제점들이 얹혀 있는 성매매에 관한 세미나를 한번에 끝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초 세미나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실태를 보는 것만 하여도 힘에 부치는 일이죠. 우선 왜 윤락이나 매춘이 아닌, 성매매로 명명하는지 그 의미부터 시작해서 자발성의 신화를 비롯한 성매매에 대한 무수한 오해와 편견들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성 산업 구조에서 움푹달라져 묵여있는 피해자로서의 성매매 피해 여성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고, 문제 제기를 성매매 피해 여성이 아닌 남성 고객 중심의 수요에 맞추어서 세미나를 진행한다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가는 새할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듯. 갔다 온 언니들의 경험 이야기나 활동 소개, 다음 새할 코시기 등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죠 ^^

5. 몸, 정체성

「다이어트의 성정치」, 한서설아 지음, 책세상

「섹슈얼리티 강의」 5장 '여성의 다이어트, 경험을 통해 본 몸의 정치학', 한서설아

「여성/몸/성」 4장 '여성과 몸', 장윤필화, 또하나의문화

「육체의 언어학」 8장 '여성들의 동작', 낸시 M. 헨리, 일월서각 (실제와 함께! 남자애들 시켜요)

*조각책 목은 심화세미나로 보면 좋은 책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1장 '한국사회의 성별 체계와 여성의 이미지', 김은실, 또하나의문화

「여성과 사회」 10호, '섹시함의 페미니즘적 전유는 가능한가', 이박혜경

—버자이너 모놀로그(연극으로)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사라 네틀턴, 한울

5장 '몸의 사회학' / 6장 '일반인'

*같이 보면 좋은 영화

「베터 덴 섹스」, 「걸스 온 탑」, 「슈팅 라이크 벡」, 「소년은 울지 않는다」, 「헤드워」,
「처녀들의 저녁식사」, 「러브 & 섹스」

>> 고대 이래로, 몸/정신의 이분법은 서양철학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이분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근거(의 합당성 없음이 이제는 낱낱이 까발려진)를 들어 몸=여성=열등, 정신=남성=우월 이라는 통식이 생겨났죠. 이 논리 감지 않은 논리에 따라 여성들의 일상과 행동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가해져왔는지 짚어보며 시작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사회적으로 읽히는 바, 요구되는 바들은 한결같이 남성중심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그들의 구미에 맞게 여성들의 몸의 축소나 변형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여성의 몸'의 기준을 만들어 그것을 기제로 여성의 존재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하면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몸을 보며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이어트의 성정치」는 쉽고 재미있는 글이어서 같이 읽고 자신의 경험들을 쏟아내기에 좋은 커리예요.

이 세미나를 통해 여성으로서 나를, 내 몸을 긍정하고 몸에 대한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물론 이것은 절대로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TV속의 그녀들과 거리에서의 그들의 시선에 맞부딪치며 살아야 하니까요.) 바래봅니다.

6. 여성과 일

「여성과 일」 1부 2장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 강이수 외, 동녘

—2002 Mayday 관악 활동단 여/생 자료집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 외, 이화여대 출판부

「여성노동워크숍-여성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노동자로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배제와 폭력의 기제로서의 섹슈얼리티', 관악여성모임연대

*조각에서 혹은 심화세미나로 보면 좋은 책

—인도여성독자노조 SEWA

「여성의 역사」 4권 하, 15장 '여성노동자', 조안 스콧, 새물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우에노 치즈코, 녹두

*같이 보면 좋은 영화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평화란 없다」, 「밥·꽃·양」, 「평행선」

>> 여성에게 있어서 일이 갖는 의미 - 매우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풀이하는 세미나가 되면 좋겠네요. '집에서 놀고 있다'고 표현되는 엄마는 사실상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일하고 있음을, 임금노동을 하는 여성들도 무급가사노동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아야겠죠. 집안과 집밖에서 여

성이 하는 많은 일들은 성별분업이라는, 단지 '성별'에 의한 불평등한 분업 이데올로기로 여성의 삶 이곳저곳에서 제약받습니다. 임금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할 땐 (부족하지 않을 때에도 물론) 값싸게 이용하고, 경제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내치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평화란 없다」나 「밥·꽃·양」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지는 감정, 배려, 보살핌과 같은 일들은 일로써 평가되지 않는데, 결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노동'이라 불리는 일들처럼 (완전히 같은 의미라는 뜻이 아니라) 숙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힘들여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점을 「노동과 페미니즘」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데이 여/생 자료집이나 여모 자료집 등은 언니들의 짜임새 있는 좋은 글들이 듬뿍 담겨있으니 두고두고 볼 자료들이죠.

7. 낙태, 피임

「섹슈얼리티 강의」 7장 '낙태보고서-연애에 나타난 권력지형도',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녘

「달나라 딸세포」 3호 '호호아줌마'

특집 '이제 낙태를 말한다', IF 2001년 봄호

「당당하게, 여자!」 1권 5장 '임신', Esther Drill, J'nR,

*같이 보면 좋은 영화

「더월 1」, 「그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것」

>> 낙태처럼 모든 이들이 알고 있으나, 불법인, 공공연한 사회적 비밀은 찾아보기 드물죠. 매년 임신중절수술을 행하는 여성은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녀들에게 '불법', '낙태의 죄'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임신을 할 권리'나 혹은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 수술을 '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외침은 오직 (남자)태아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일 뿐 그 누구도 낙태 수술 뒤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임보다는 순결을 강조하고, 낙태에 대해서는 죽어가는 태아만 보여주는 끔찍한 비디오를 트는 기존의 성교육은 여성의 죄의식을 키울 뿐,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귀와 입은 막히게 되죠.

그 귀와 입을 시원하게 뿜어주는 세미나를 기대하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려운 곳 박박 긁어주는 '호호아줌마'의 글을 보면서 이야기한다면 좀더 이야기하기 편하고 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세 번이나 나누어서 실린 언니네 기획특집 '낙태'를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섹슈얼리티 강의 7장은 낙태가 연애 관계에 있어서 남녀간 권력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피임에 대해서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늘 임신의 공포에 시달려하는 미혼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 낙태에까지 이르는 경험은 결코 그녀의 잘못이거나 비난 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참, 산부인과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한 세미나가 아닐까!! ** 이름부터 '산부인과'인 그 곳은 20대 여성이 들어서는 순간 어찌나 시선이 따갑기도 하던지. 하지만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다면 꼭 정기적으로 들를 필요가 있는 곳이죠. 주변에 좋은 산부인과 정보도 공유한

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8. 포르노그래피

「섹슈얼리티 강의」 4장 '일상 생활 속의 포르노그래피 정치학', 윤자영, 동녘

「포르노그래피」 1장 '권력', 안드레아 드워킨, 동문선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린다 러블레이스의 [목구멍 깊숙이]의 진실', 글로리아 스타이넴, 현실문화연구

「사회평론 길」 57호 중 '포르노와 페미니즘의 만남', 유지나

>> 이 팀은 대개 자신이 청소년 시절 포르노를 본 경험에 대한 소소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포르노를 본 경험에 대한 여학우와 남학우의 반응은 대비되게 마련인데, 이 지점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요. 포르노는 남자들 사이에만 공유되는 문화적인 코드로써 자리하고 있고, 그들은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합니다. 여학우들은 포르노를 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꽤 있고, 봤더라도 굉장히 불쾌한 경험으로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포르노에 재현되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지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포르노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감정을 교류하며 섹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포르노가 단지 포르노 매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포르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포르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상식으로 여겨지는)를 친절하게 풀어내고 있는 「섹슈얼리티 강의」 4장은 꽤나 괜찮은 커리큘럼입니다. 포르노 산업에 유입되는 여성과 포르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 문제 등을 린다 러블레이스라는 여성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써어진 '목구멍 깊숙이'도 보조커리로 같이 보면 좋구요. 포르노에 대한 단순한 찬성/반대를 넘어서, 포르노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고 성별화된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것, 포르노 문화가 여/남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들을 적시할 수 있는 세미나로 진행해보아요.

9. 장애여성

「당대비평」 15호 '연속기획: 장애여성의 등장, 그 정치적 의미'

「공감」, 장애여성공감 1~6호

* 같이 보면 좋은 영화

「거북이 시스템즈」

>> 장애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장애인권운동 역시 남성 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요. 90년대 말 「장애여성공감」이라는 단체를 통해 장애여성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면서 비로소 장애여성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즈비언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소수자들에 대한 내면화된 편견을 깨부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화나 소설에 나타난 장애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러한 편견들을 포함하여 장애여성들이 받는 사회적인 억압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 장애여성이 받는 억압을 '장애+여성'이라는 도식적인 구조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경우, 장애여성 운동이 왜 독자적으로 나타나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커리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너무 최근의 일이라, 심지어는 번역된 책도 거의 없지요.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장애여성공감」에서 내고 있는 잡지 「공감」과 당대비평의 특집 정도예요. 하지만 이 커리들은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글보다도 소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강의」 8장 '한국 레즈비언의 성과 삶', 박민선, 동녘

—레즈비언 글 모음집(판악여모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중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에게 묻는 가장 흔한 질문의 역질문(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최안드레아) / 이성애 제도와 레즈비언

* 꼭 가져서 혹은 심화세미나로 보면 좋은 책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1장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서동진, 문예마당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3장 '강제적 이성애를 넘어서: 레즈비언리즘과 그 정치학', 조윤정, 김수기 등, 현실문화연구

* 같이 보면 좋은 영화

「여고괴담2」, 「더월2」,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

>> 몇 년 전 판악에서의 한 설문조사에서 '동성애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가장 흔한 폭력의 일종입니다. 동성애는 찬성/반대의 대상이 아닌, 엄연히 존재하는 성적체성입니다. 이 지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실은 거의 모든 세미나 구성원들은 호모포비아를 내면화하고 있을테니까요.

여성주의 담론에서조차 동성애는 무시되곤 합니다. 연애, 가족, 결혼, 성폭력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이성애 관계이지요. 따라서 이 세미나에서는 자신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호모포비아를 깨부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커리로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도 임끼리끼리에서 나온 글들을 읽는 것이 좋겠네요.

이러한 작업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즈비언 인권운동이 여성운동,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낼 수 있겠지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자리에는 이성애자밖에 없지만'이라는 가정 혹은 발언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미나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곤 하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레즈비언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새내기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도 적절하게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에게 하는 가장 흔한 질문의 역질문'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게 좋겠네요.

11. 에코페미니즘

「꿈꾸는 지렁이들」, 꿈꾸는 지렁이들, 환경과생명사

1장 '생리대가 여성 건강을 망친다', 이윤숙

2장 '화려한 화장품의 어두운 그늘', 한권오분

11장 '갯벌 위 살림의 손, 새만금 여성들', 윤박경

「페미니즘 사상」 8장 '에코페미니즘', 로즈마리 톰, 한신문화사

「에코페미니즘」,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창비

서론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쓴 이유'

1부 4장 '따라잡기식 개발의 신화'

'the face of the future', 「에코페미니즘」, 2001/11/12월호

*조각에서 혹은 심화세미나로 보면 좋은 책

「래디컬 에콜로지」 8장 '생태여성론', 캐롤린 머천트, 이후

「살아남기」, 반다나 시바, 숲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로지 브라이도터 등, 나라사랑

>> 기초 세미나 커리에 에코 페미니즘 팀을 넣은 것이 조금은 생소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나 사상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지만 관심과 더불어 오해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 페미니즘이 오직 모성에 기반을 둔 대지모 사상이라던가, 생태학적 본질주의에 근거한 여신 사상이라고 보는 것 등이 그 오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세미나에 한 팀 정도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의 입문용으로 커리를 한번 짜보았습니다.

에코 페미니즘은 문명/자연, 남성/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도 하에서 형성된 착취적인 지배 관계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여성 해방과 자연 해방이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여성 운동과 환경 운동은 꾸준히 함께 결합해 왔으며 새만금 갯벌의 여성 주민들, 인도의 칩코 여성들,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의 추진력이 된 여성들 등 수많은 곳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악화와 환경 파괴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게 미치는 것보다 더 컸으며, 어디서나 환경 파괴에 먼저 반대하는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에코 페미니즘은 생물적,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성/자연, 물질/정신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단 하나의 가치와 발전상만을 인정하려는 남성 중심적 개발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대합니다. "공적, 정복, 소유, 통제라는 동일한 단계 속에서 대상이 땅이건 여성이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에코 페미니즘 중)"

세미나 커리를 보자면, 우선 '꿈꾸는 지렁이들'이라는 책에서 한두 장 발췌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에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쓴 글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페미니즘 사상'이나 '래디컬 에콜로지'의 에코 페미니즘 편을 본다면 사상적 조류를 이해하거나 기초적인 관점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에서 따라잡기식 개발의 허구성, 성 중립적이지 않은 과학과 기술, 여성과 환경의 빈곤화 등으로 찾아보시면 나름의 알찬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12. 기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진 시노다 불린, 또하나의문화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3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이효재

「내셔널리즘과 젠더」 2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우에노 치즈코, 박종철출판사

「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훌륭한 어머니처럼', 아나 마리아 슈아, 이사벨 아옌데 등, 생각의 나무

「페미니즘과 군사주의」, PEACE MAKING

「테러의 재현」, 마리아 올루직

*같이 보면 좋은 영화(여성의 삶, 작업에)

「조이락 클럽」, 「아메리칸 필트」, 「바그다드 카페」, 「보이즈 온더 사이드」, 「델마와 루이스」, 「디 아워스」



"심심한데 기초 세미나나 하고 싶어라!"

< Small Tips For You! >

>> intro

안녕하세요, 만나서 어찌나 반가운지^^ 우선 세미나 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근데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시지요? 그런 당신을 위해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저 역시 세미나 교사를 한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그마한 경험이나마 여러분과 나눴고 싶거든요. 물론 세미나 교사가 되신 여러분이라면 여성주의를 '보고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믿음으로 받아 안고 게실 것이기에 제가 드리는 조언들이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풍부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입장과 당파성: 편협한 페미니즘?

제 주변에서 여성주의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이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요, 많은 이들이 '편협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와 실천이 편협하지 않으려면 가부장적인 남성들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지, 그들의 말도 어느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지, 그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회화된' 피해자인 것은 아닌지 등의 고민들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종종 이러한 고민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왜곡된' 남녀의 관계를 바로잡고, 남녀의 조화롭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에 페미니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뭐 이런 고민들을 들을 필요도 없는 고민이라고 매도하긴 어렵지만(제가 성격이 좀 나빠서^^),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점에 일종의 '강박'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생각되네요. 세미나 전에 당신이 페미니즘에 대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선 부족하나마 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페미니즘은 '여성'을 진지하게 사고하는, 여성들 내부의 힘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긍정하고 발전시키는 사고방식의 총체인 것 같아요. 이는 동시에 페미니즘이 모든 면에서 완전무결하거나 이미 완결된 사상이 아님을, 그리고 '여성'을 단순히 하나의 종속 변수로 간주하는 이론이 아님을 의미하지요. 즉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생각과 해석의 방식'인 것이죠. 물론 그럼으로써 '어떤' 남성들에겐(어찌나 소수인지^^) 페미니즘이 자신에게 아로새겨진 가부장적 권력을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여성들이 남성들을 일일이 쟁거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스스로 해야 할 몫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에 많은 페미니즘 세미나에서 남녀의 조화로운 모습, 남녀의 평등한 관계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은 다소 강박적으로 보입니다. 어찌면 이는 지독하게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시선으로 자신을 검열해왔던 경험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쓰다보니 필요 이상으로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페미니즘에 '편협한'이라는 수사

를 붙이지 않기 위한 돌파구는 가부장적인 남성들의 언어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여성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의 정치성과 입장은 어떻게 획득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확고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반에서 남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펼쳐 가는 것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만, 소위 '조화로운' 페미니즘은 이미 페미니즘이기 어렵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필요 이상으로 공세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페미니즘의 정치성과 입장에 대해 확인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이 부분은 S. Harding,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와 M. Mies, <Eco-Feminism>을 상당부분 참고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Harding 언니와 Mies 언니에게 감사드리구요, 데리다 오빠의 도움도 조금 받았습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앞서 '편협한'이라는 수사로부터 페미니즘이 자유롭기 위한 방법으로 남성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 시선에는, 남성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은 '중립적인/편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S. Harding 언니는 어떤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방관을 포함해서 소위 중립성을 취하려는 태도 모두를-그것은 '이미'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 데리다 오빠를 따라, 이러한 태도를 '약한 객관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 체계는 모두에게 동등한 가치중립적인 이론을 가정했는데, 사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성 중심적인 현실이 이미 압도적인 상황에서, 남성 중심적인 현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현실에서 구성되는 남성들의 문제는 여성주의적인 주장 안에 적당히 섞여짐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따라서 페미니즘은 일정한 당파성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Harding 언니에 따르면 당파성이란 이러한 갈등적 실재 속에서는 '일정한 입장'을 취할 때 비로소 그 갈등적 실재가 시야에 들어온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러한 페미니즘의 방법론에 대해 M. Mies 언니 역시 소중한 충고를 해주셨어요. Mies 언니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중립과 무관심이 아닌 의식적 편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 편향이란 연구 대상을 더 큰 사회적 전체의 일부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단순한 주관주의나 감정입입과는 달리, 제한된 동일시를 기본으로 해서 연구자와 '대상' 간의 비판적인 거리를 만들고 서로 feedback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후배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후배가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페미니즘에서 입장과 당파성을 강조해야만 한다는 건 좀 알겠는데, 그렇게 입장과 당파성을 강조하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안에 갇히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예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페미니즘을 하나의 완결된 이론으로서가 아닌 '사고방식의 총체', '진행 중인 체계'로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매 순간마다 맥락화시키고, 그것을 성찰함으로써 말이지요.

> 세미나 열 사람들과 모으기 혹은 고시기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커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세미나에 사람이 없다면 앙고 없는 편방이겠

지요. 가장 좋은 건 역시 무차별 제안 공세인 것 같아요. 커리가 먼저 나왔다면 커리를 들고 다니면서 호기심을 자극하여 한 번 구경 와 보라고 한다면가 흔히 가지는 페미니즘에 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보고 세미나를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파방 문에 '세미나 할 사람 요기요기 붙어라' 등으로 커리 목차와 세미나 하는 사람들을 적어놓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은근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성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책, 또는 잡지 등을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 말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아이들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에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고 당신의 제안에 매몰차게 "싫어요", "안 할래요"라고 말할 지도 몰라요. 그러나 집을 먹거나 너무 마음 상해하지는 마세요. 또 어떤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만 있는 데지요? 그런 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군요. 그럴 때에는 세미나에 무조건 참석하라고 말하지 말고, 그 애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자애들끼리만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의식적으로 알고 느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물론' 싫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애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마냥 좋기 보다는 기분 나쁘고 불편한 경험이 될 때도 많지요.

> 선배들의 team work

세미나를 함께 하는 선배나 동기들이 얼마나 있나요? 교사인 당신뿐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함께 하는 선배나 동기가 여럿인 경우에는 team work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질문을 어떻게 던질지, 누가 대답할 지 등에 대해서 약간 정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미나 진행 경험이 얼마 없다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어요. 가끔 서로 개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른 용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한 한 합의하고 정리한 뒤 세미나에 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세미나 이전에 하는 pre-seminar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논점을 정리해 보면서 세미나에서 그만큼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다면, 준비하는 사람의 부담도 덜 수 있고 좀더 안정적이고 알찬 세미나를 꾸릴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 매 세미나 때마다 교안까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TT_TT

> 세미나에 남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제 경험을 반추해보면, 함께 하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최악의 세미나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이 많은 경우엔 대략 두 가지 상황에 이르기 쉽습니다. 하나는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이구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거부감을 피력하는 경우이지요. 사실 교사에게는 두 가지 상황 모두 난처합니다.

우선 여성문제에 대해 남학생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세미나 내용이 자신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혹은 여자 선배나 동기들에게 마초로 찍힐까 두려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경우에는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남성 position에 대한 언급을 토대로 결코 자신과 무관한 문제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한편 주제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차라리 앞서의 경우보다는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망한 세미나가 될 수

있겠지만, 적절한 대답을 통해 논리를 꺾은 경우엔 세미나 내용에 동조하는 모두에게 뿌듯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지해야 하는 것은 '길러도 안 자랄 씹 미리 밟아내자^^'라는 신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그들의 '공정한, 편협하지 않은' 말투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역설한 페미니즘의 정치성이나 여성의 언어에 대한 고려 등을 납득시키기 전에 그들의 언어를 이용해서 감정적이지 않게, 논리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짜증나긴 합니다만, 상황이 개 같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덧붙여 '세미나에서 적어도 이 점만은 꼭 이야기하자'는 내용을 잡아두고 요점을 잘 잡아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 세미나에서 여학생들과 경험을 나눌 때 주의할 점

앞서 지적한대로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고, 사실 그래야 합니다. 이전의 지식에 의해 왜곡당하고 보이지 않았던 경험들을 적시하고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고, 사회관계의 왜곡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페미니즘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학생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반추해보는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의의 지반 위에서 나누어지는지 깊어보지 않은 채로, 무의미한 성토대회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주변적인 위치를 '경험'한 것은 페미니즘의 출발점임을 상기하면서, 출발점에서 한 발 내딛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경험을 나누고, 그것이 드러내는 공통성과 구조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교사의 덧붙임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떤 렌즈로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개별적인 경험들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구조적 문제가 숨어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들을 세미나 전에 미리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그러나, 여학생들이 모색을 때도 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마초질이 더 무섭다구요. 사실 부인하긴 힘들습니다. 마초질은 마초들처럼 마음껏 밟을 수도 없으니 말이죠. "피해 의식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등의 수사를 남발하며 '가부장제의 착한 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마초질들과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사실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개인적인 공격을 피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그것에서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것이 다른 어떤 방식보다 나은 편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뒤에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가장 낫다고 충고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방법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 성폭력 세미나를 할 때는요,

성폭력 문제는 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할 때 비교적 쉽게 문제 상황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초기 세미나에서 높은 수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 힘들지만 말이죠) 시작은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여성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성폭력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지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일부 몰지각한(?) 남

성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라는 생각이나, 자신은 피해자가 될 리 없다는 통념을 꼭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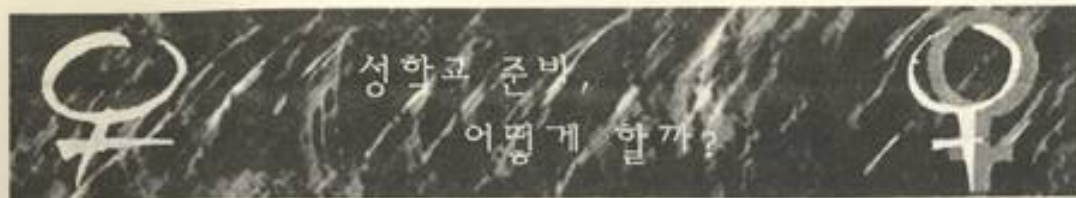
성폭력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써 옮겨온 뒤에는 성폭력이 사회적인 성별 권력과 구조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일상적인 성 문화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개인과 사회'라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성폭력적인 성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해자 개인에게 면죄부를 던지는 방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커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뒤편이든 꼭 한다!!

언제나 세미나를 하면 뒤편이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미나뿐만 아니라 언니들과, 여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놀고, 즐겁게 떠드는 경험 또한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지요 (무조건 술마시는 뒤편이가 아니라, 찻집에 간다거나 같이 영화를 보러간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뒤편이 문화를 고민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예요.) 미처 세미나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 요새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경험들, 이런저런 생각들을 내보이면서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힘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많은 경우라면, 좀더 세세하게 세미나 내용을 짚어 주면서 뒤편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세미나 때 좀 공격을 많이 받은 애의 경우에는, 잘 다독여주면서 좀더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것도 좋고요. 혹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던 남자애라면 세미나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한번 들어보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세미나 때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은 어떨까요. 어쨌든 누가 뭐래도 뒤편이든 세미나의 핵심!! 즐거운 뒤편이 하세요!! ^^&



"Great Tips for Me!!"



0. 성학교는 어떤 명사?

인문대 여성모임연대에 함께하는 과반 여성운동모임에서 3월 새맞이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인연에 있는 모든 과반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인연에 함께하지 않는 과반에서 교양학교의 일환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각 과반에서 독자적으로 꾸리고 싶거나 그럴 역량이 되는 과반의 경우엔 같이 하지 않기도 하구요. 자료집과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생산하되, 각 과반으로 돌아가 과반의 사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2년에 철학과반 소피아, 종교과반 나부, 동사과반 이수라 이렇게 세과반이 모여서 같이 자료집을 만들었고, 03년에는 종교상상반 나부, 국사새날반 여담, 영문생동반 뽕 이렇게 세 과반이 모여서 함께 했어요. 올해 04년에는 다섯 개 과반이 모여 준비를 시작했구요. (앞으로 쓸 내용은 이 글을 쓰는 02학번들이 준비한 03년 성학교를 중심으로 쓰일 겁니다^^)

성학교의 취지는 '다시 혹은 새로 배우는 성교육' 정도랄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왔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성지식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남성중심적이었고 잘못된 정보들도 많았다, 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존에 구성되었던 성지식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바꾸어 보자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학교는 대다수의 과반 새내기들과 함께 진행하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성학교 이후에 새내기들과 과반 여성운동모임의 세미나를 함께 한다거나 활동을 같이하길 바라는 부분이 크겠죠. 그래서 성학교와 같은 자리를 처음 접하는 새내기들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기 위해 커리도 쉬운 글들로 구성하고, 발제 같은 형식보다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참신한(?) 커리들을 마련한답니다.

1. 맵그성과 진영은 어떻게 했나요?

02, 03년 성학교 자료집은 거의 구성이 같습니다. 총 두 텀으로, 1텀은 <금지되었던 것들을 소리 내어 말하기 "성지식">, 2텀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다. 아주 특별한 용기 "성폭력"> 으로 구성했어요.

1텀 성지식은 월경, 자위, 피임 (02년에는 성병, 페니스와 클리토리스 와 같은 소주제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월경' 커리는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을 부분 발췌하여 도입부에 넣고 월경이 그동안 손실을 의미하고 터부시되어 왔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실제로 월경이 어떤 생리적 현상인가를 설명하고, 생리관련 Tip까지 넣어주는 글입니다. 이 텀에서는 월경에 대해 그동안 갖고 있던 편견들(그것이 곧 사회에서 월경이 임하는 바이겠죠)을 이야기하고, 생리통에 대한 여학우들의 경험을 나눌 수도 있었고, 과반에서 많이 하는 '생리대 비치'와 같은 일들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위' 텀의 초점은 자위(여성의 자위)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수면위로 띄우기! 그리고 자위가 여성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새내기들 입에서 절대로 자신의 자위경험이나 자위에 대한 생각이 나올 리가 없죠^^; 새내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깐요. 그래서 자위 텀의 진행은 익

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쪽지를 나눠주고 '자위'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간단히 적게 한다음 모아서 진행자가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피임'은 일단 처음에 '누구 한 사람(여성)의 몸이 아닌, 성관계를 가지는 두 사람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피임법에 대해서 커리를 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피임법들 중에서도 콘돔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피임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구요.

1팀의 마지막(혹은 1팀 시작 전에 한 과반도 있어요)에 10개의 퀴즈를 내서 성지식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순서도 마련해서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2팀 '성폭력'은 다소 많은 내용을 커리로 담았어요. 섹슈얼리티 강의 9,10장 등을 참고하여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이야기하고, '데이트 강간'의 개념과 데이트 강간을 피할 수 있는 팁, 그리고 강간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바로 알기'에서 '성폭력 위험도 점검하기'라는 24문항으로 된 문제, 그리고 역시 섹슈얼리티 강의에서 참고해 쓰인 '성폭력 바로 알기' 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사정상 진행을 못한 과반도 있고, 진행을 했더라도 힘든 팀이었습니다. 종교과반 같은 경우에 이 팀은 발제를 주르륵 하고 거의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많이 못 듣고 끝난 팀이에요. 국사과반도 진행할 때 매우 힘들었다고 하구요.

성폭력 팀을 성학교 때 하기에 무리와 부담이 커서 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성차' 같은 팀을 넣는 것이죠. 경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논쟁이 될만한 지점도 많으니 흥미로운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각 팀의 명칭과 팀은?

>> 1팀 성지식

성지식 팀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누구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깨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했어요.

먼저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생리대와 탐폰을 준비해서 실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리대를 접해보지 못한 남학우들 뿐 아니라 탐폰을 처음 보거나 사용해보지 않은 여학우들의 관심도 집중되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또, 생리주기 팔찌를 만들면서 자신의 생리주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구요. 이 때 남학우들에게는 평균주기로 2-3명씩 함께 만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완성된 후에는 팔찌로 착용하기도 하고, 핸드폰줄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지요.

자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익명으로 한글 쪽지를 적어 내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월경이나 피임에 비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소재임을 감안하여 성학교 준비 기간에 생각해 낸 방법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한 줄로 자위에 대한 생각을 적어서 모은 다음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식이었습니다.

피임에 대한 부분에서는 콘돔을 직접 보았는데, 이 때 사용법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모두 하나씩 콘돔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함께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담의 음에 의하면, 너무 싼 콘돔으로 하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네요. 돈이 좀 들더라도 괜찮은 콘돔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서 1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커리 숙지도도 체크해볼 수 있었습

니다. 문제를 적당히 고르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퀴즈라는 형식 자체는 여러 면에서 유용한 것 같아요. 문제를 풀고 채점 결과에 따라 상품으로 여성주의 서적을 주었던 것도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주열적인 면을 강조해서 무난하게 치루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여/남이 함께하는 성학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학교 뒤풀이 자리 또는 여학우 모임을 통해서 성학교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 2팀 성폭력

힘든 건 성폭력에 대해서 하는 2팀이었던 것 같네요.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낯설면서도 새터 때 많이 들었다고 지겨워하기도 하며(여남학우 공통) 또 반감을 내보이기도 하는(대개 남학우-+) 새내기들과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번에도 (성지식 팀처럼) 일상적인 경험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괜히 손이니 어깨니 만지고 하는 선생들 변태라고 하면서 많이 욕했던 것 같은데 (그걸 성폭력이라고 이름붙이지 못해도),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게 많이 할 만한 성적수치심을 주는 '장난'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부분은 글을 같이 읽어볼 필요도 있구요.

많은 새내기들에게 대학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연애이니만큼, 연애관계에서의 성폭력과 데이트 강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요. 넓게 이야기하면 연애관계 자체의 남성중심성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 자료집에도 실었던 성폭력 위험도 테스트 있지요? O/X 문제 테스트인데 O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해자/잠재적가해자인 테스트 말이에요. 이 테스트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달까?

새내기들한테 말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엔 적당히 시키는 것도 필요하구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잘 나오면 진행하기는 훨씬 편해지지요.

흠... 아마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전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겠지요. 일부는 끔찍하단, 일부는 어리둥절, 또 일부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있으면서 속으로 싫어하고 있을 테고... 이 날 이야기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로 지속적으로(당장 당일 성학교 뒷풀이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3. 뒷풀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팀은 아무래도 성학교 자리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뒷풀이나 이후 세미나들을 통해서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성학교에 많은 새내기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배들이 부르는 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잘 따라다니는 시기이지만, 또 별로 안 가도 될 것처럼 보이면 잘 오지 않으니까요. 이 건 과반에 따라 다르겠지요. 새날반 같은 경우에는 학회가 굳건히 버티고 있어서 신입생학교에는 스무 명 가까이 참여하면서 성학교에는 몇 명 안 왔어요. 02년에는 7명 정도? 왔고 03년에는 한 번 뽕 나고 답답들한테 다그쳐서 많이 참가하게 만들었지요. 여하튼 성학교를 '귀찮으면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악그 자료집을 전시해 놓을테니 잠그주세요 :)



여성공간 만들기



탈출기

여성공간만들기

집을 등에 이고 사는 것들은
모두 달로 가야 한다
나뭇잎 위에 앉아 있는 달팽이를 본 적이 있는가
배경으로 언제나 달이 뜬다
집이 아니야 집이야
그 집 속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어머니가 손톱을 깎으신다
동생은 수학 문제를 풀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외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속에서 나는 자주 아버지를 총으로 쏜다
재발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 자꾸 죽어요
내 집이 피로 물들어요
애야 노을이 저야 달로 간다
나는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달이 창백한 건 일찍 나왔기 때문이 아니야
달은 출혈의 산물이야
내가 얼마나 피 흘리고서야 잔잔히 떠오르겠습니까
— 진은영 「달팽이」

#1

매달 15일, 언니와 나는 서로를 축하한다.
가진 것이 없어 언니가 좋아하는 사탕 및 알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소박한 축하연도 매번 있다.
축하해야, 축하받아야 마땅한 날이다.
어느 해, 어느 달 15일 새벽,
우리의 탈출을 돕기 위한 이삿짐 트럭이 왔다.
우리의 작은 모반은 성공적이었다.
최초로 얻은 자유, 최초로 쟁취한 독립.

#2

젊은 그는 자칭 집안일에 매우 능한 사람이다.
요리사 자격증도 있는데다가 제대 후엔 집안일을 '돕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어느 명절날 어느 때처럼 부엌일 여기저기를 간섭하던 그는

내게 행주를 던지고는 차례상을 뒤엎는다.
전을 뒤집느라 정신없었던 내가 행주를 뺏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집안일에 능한 사람이다.

유학 시절 만났다는 새언니는 똑같은 요리사이면서도
식당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럼 그는? 어엿한 사장님은 홀에서 손님을 접대한다.
되먹지 못한 사장님은 주말이면 언니와 나를 식당으로 부르곤 했다.
“시누이가 새언니 일을 도와야 하지 않겠어?”
새언니 이혼해요.

늙은 그는 그의 말에 따르면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린 시절 식탁 앞에서의 그에 대한 기억이라곤
엄마에게 반찬 투정을 하고 욕설을 내뱉던 것뿐이니
어쩌면 그의 말이 정말일지도 모르겠다.
딱 한 번 끓는 곰탕 솥에 대파를 썰어 넣고는
집안일을 ‘도왔다’며 몹시도 생색낸 적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 꼴이 아주 우스웠다. 우스워서 그를 죽일 뻔 했다.
우리가 독립하게 된 것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다.
늙은 그는 자기 밥상에 올라온 상추가 시들었다며
언니와 내게 수저를 던지고 ‘호로새끼’라고 불렀다.
실소를 금치 못했다. 당신 호로새끼가 뭘 줄 알아?
내가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예비 없는 자식이자.
둘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그는 집안일을 아주 잘 한다고 한다.

#3
차례상이라고 차려놓은 것이 매우 어수선했다.
엇저녁 먹다 남은 김치찌개도 올라와 있고, 초코파이 한 봉지도 제자리를 잡고 있다.
그나마 차례상다운 것이라고는 부랴부랴 끓인 떡국 한 그릇 뿐.
“있잖아, 엄마가 제사 음식 진짜로 싫어했던 거 알아?”
“.....알지.....”
“자기 제사상에 제사 음식 절대로 올리지 말겠는데.”
그녀가 죽고 7년 동안 우리는 명절 음식, 제사 음식 만드느라 진을 뺐어야 했다.
엄마가 남긴 말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는지
드디어 우리는 엄마가 좋아하던 ‘진한 커피 한 사발’을 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4

“고시 안 봐요.”
“.....다시 말해봐.”
“시험 안 본.....”

늙은 그는 힘도 좋다. 이렇게 사람이 무력해 질 수 있도록 패다니 그것도 재능이다.
늙은 그는 다른 사람의 날개를 꺾어 놓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엄마가 그 몰래 약국을 다시 시작했을 때에도
언니가 대학을 다시 다니고 싶어 했을 때에도
똑같았겠지. 똑같았을 거야.

#5

“있지, 나하고 싶은 거 있다.”
“니가 하고 다니는 그 여성운동?”
언니는 여성운동 나부랭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좋다.
자기는 원래 사회주의 여성해방 ‘왕국’의 ‘왕’이 될 생각을 했었다면서
뻗속까지 페미니스트라고 우기고 있다.
“너는 하고 싶은 거 뭐야?”
서른이 다 되어 가는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은 없어지는 법이라고 말하지만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뒷바라지 해 주마 약속한다.

#6

무서운 날이었다.
길을 걷는데 눈앞에 그가 나타났고 역세계 나를 잡아끈다.
당신 손에 죽느니 차에 치어 죽지.
나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후로 몇 달간 광장 공포증 때문에 집밖으로 발걸음을 떼어 놓지 못했다는 것은
몇몇 지인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언니는 참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가 우리의 보금자리를 찾아냈다.
우리를 미행한 것이라고 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집 밖에서 언니와 그가 실랑이하는 소리가 들린다.
캄캄한 화장실에 숨어서 112를 누른다.
“나쁜 놈이 우리 언니 죽이려고 해요.”
경찰은 언니와 내 얘기를 들더니 위에도 보고를 하나 보낸다.
“어린 여자에 둘이서 가출했나 봅니다. 별일 아니에요.”
우리들의 독립은 당신들의 가출이지.

#7

세상은 떠든다. 여자도 돈이 필요하더라고

같은 말을 그들로부터 들었다.

여자들이 사느 게 만만하게 보이나.

그들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험박할 수 있는 카드 역시 돈이었다.

유산 상속받기 싫은가보지?

물론 내 어머니의 땀과 피를 너의 재산이라고 우기는 꼴은 역겹지만

나는 가볍게 성(姓)을 버렸고, 언니는 즐겁게 호적을 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과 오백 파운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세상아,

나의 탈출은, 나의 독립은 너희들이 가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언어를, 나의 공간을 아직 제대로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자매들과 든든한 지원자들이 있는 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여자는 삼계(三階)에 집이 없어

아버지의 집도

남편의 집도

아들의 집도 여자의 집은 아니어서

친구여 나에겐 그런 예감이 있다네

나해석은 죽어서도 울게 묻히지 못하여

구원을 떠돌다가

이제 나에게로 와서

내 가슴을 위패 삼아 머물고 있으니

나 또한 미신처럼

그녀의 신위(神位)를 비밀히 모시고 있으니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자신을 천지 사방 찢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검정나비처럼 흰나비처럼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선

항상 비명 횡사를 생각해야 하는가

— 김승희 「나해석 콤플렉스」 중에서

'공간'에 대한 특별한 기대, 여성공간으로서의 여류

'공간'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붕 뜬 느낌으로 다가오는 단어일 수 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하루의 일부만을 보내는 '학교'라는 곳에서 공간을 이야기한다면 더욱더 그 느낌은 강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고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일상 은 결국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시공간을 함께 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는지. 그러기에 내가 어느 공간에 있

고, 어느 공간을 갈 수 있고, 갈 수 없는지, 가고 싶은지, 혹은 가기 싫은지, 어떤 공간을 바라는지 가 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생활/문화/삶의 이야기이며, 여성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말함이다.

예초 여성들에게 공간이란 것은 주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 중 하나이다. 더군다나 그녀들만의 공간이란 부정적인 폐쇄성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는 '집'에서 방 하나를 쓸 수 있는 권리도 '딸'일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나마도 그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제한되어 있지만 '아내', '어머니'가 될 경우 그녀의 공간이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채널을 쥐고 누워있지만 그녀들은 설거지를 하며 부엌에서 있다. 기혼남들에게 집이란 '설 곳'이지만 기혼녀들에게 집이란 '돌보아야 할 곳'이지 설 곳은 아니다. 시시 때때로 '아내'/'어머니'의 역할이 딸들에게 전이될 때, '자립'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됨을 느낄 때 그녀들은 은밀하게 '자기만의 방'을 꿈꾸기 시작한다.

그 꿈꾸기에는 '대학'이라는 공간도 포함이 되기 마련인데, (많이 미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학은 자유와 진보 그리고 어엿한 성인으로서 상징되기 때문이다. 오롯한 자기만의 자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 안 할 수 있는 자유, 이상한 음담패설과 폭력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유치한 (!) 사람들이 아닌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험서를 파고 또 파는 그녀들... 때론 자취방을 꿈꾸기도 하고, 남의 눈 신경 안 쓰고 멋 부리고 다닐 날을 기대하기도 하고, 연애라는 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밤늦게까지 놀고 싶기도 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끽하는 자신을 그려보기도 하고... 하여간 '대학'에 들어가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이다 하면서 자신을 달랜다.

그/녀/나 대학에 '여학생'은 없다.

대학에 갓 입학한 1학년은 대학생이 아니라 '새내기'이다. 새내기들은 이런 저런 공간들을 거쳐 가면서 '대학생'이 되는 통과 의례를 치른다. 그 공간들은 과반, 동아리, 학회, 모임일 수도 있고(혹은 그 '방'들), 새터나 오토 등의 여러 가지 행사들(혹은 그 행사들이 치러지는 공간들)일 수도 있다. 아직 그들에겐 그나마 선택의 자유가 있다. 조금쯤의 자유를 거쳐 '대학생'이 되면, 그 때에는 각자에게 가장 걸맞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몸을 옮기게 된다. 그러나 누구나 무사히 제 한 몸을 의탁할 공간을 찾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과 그 공간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이 아님/없음' 만을 확인하게 되는 그녀들—'여학생'들이 있는 것이다.

아직 익숙치 않은 건물에는 어디에 숨었는지 여성용화장실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생리가 나오면 고등학교 때나 다름없이 은밀하게 '너 그것 있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사뭇 존경심을 갖고 교수들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때때로 아연 실색할 말들이 나오곤 한다. '요즘 서울대에 여학생들이 많아져서...', '떡은 씹어봐야 맛있고 뽕은 품어야 맛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등등... 과반방에 가면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때로 그들은 농구를 하러 가기도 하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가기도 한다. 다같이 술을 마시러 가면 역시 그 자리에서도 남자들이 단연 많다. 그 자리가 재미있어서 남고 싶어도 통학하는 여학생들은 집에서 혼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남는 사람들은 친해지는 것이고 먼저 가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지... 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자의든 타의든 함께 하지 못하면 친해지기 어려운 것은 기정 사실. 그러다보면 '여자들은 왜 따로따로 노니?' 이런 말도 듣게 되는데, 이런 때 자문해 보게 된다. '왜 우린 따로 따로 놀까? 남자애들은 따로 놀다가도 모자고 하면 잘 모이던데...'. 고민도 잠시. 사실 더 급한 건 공장 때나 심심할 때 같이 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공간이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마땅치 않을 때가 많지 않은지? 고등학교나 학원처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방'이라는 것이 있을진대, 편히 쉬거나 잠자기도 부담스러운 곳이고, 사람들과 친해진 것도 아니라면 그곳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넓디넓은 캠퍼스에 차고 넘치는 사람들, 그러나 어디에 있어야 할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시간은 그만 버거운 짐이 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묻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 의아해서 또는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혹은 불안감을 느끼며 또는 슬퍼하며. "그 많은 여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다만 대학이 맘에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가면 될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이 이 물음에는 무게가 실린다. 대학은, 대학 공간은, 대학 문화는 그다 '다르지' 않았을 뿐이다. 여성에게는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의문스럽게 꺼안고 서 있는 곳이 대학이다. 노골적인 터부나 위협으로 경계를 가르치는 않지만 항상 그 터부나 위협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곳곳에서.

이렇게, 여성은 끊임없이 '공간의 축소'를 요구받는다. 이는 몸이라는 개인이 자리한 최소의 공간에서부터 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간을 포괄하는 요구이다.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여자란 못나거나 칠칠맞은 존재이다. 여성은 날씬해야 하고, 키가 너무 커서도 안 된다. 항상 무릎을 모으고 앉아야 하며 조용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은 불평불만으로 치부되기 쉽다. 지하철에 앉아있는 남자들은 100% 다리를 켜 벌리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여성들의 관계 맺기란 상대방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녹록치 않은 일이다. 남자들의 방식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을 기준으로 한 문화이기에 여성비하적인 합의 혹은 폭력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대학문화를 구성하는 수많은 담론과 행사 속에서 이는 어김없이 드러난다. 여성은 이에 쉽게 적응하지도, 이해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들을 만나고 친해지기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당면한 현실들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고민하고, 경험을 나눌 친구와 언니들이 필요하건만 그녀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 여성들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혹은 놀이 공간도 흔치 않다. '농구나 한판?' 이럴 수도 없고.

9/3/4 여오는 시작된다.

여휴에 대해 이야기함은 그래서 공간이 갖는 힘에 대한 기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여휴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학 공간의 감추어진 물성화를 가시화시킨다. 여성들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공간'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만큼 즐거울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물론 그 '공간'에는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을 터. 언제나 친구들과 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치유와 동시에 생존으로의 전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여휴가 생긴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아직은 가능성일 뿐이지만 그래서 더욱 무한한 공간이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우리도 무한할 수 있기를— 당신에게 '여휴만만'하기를.

나와 그녀의 공간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치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법을 배운 이후로 그러한 피곤함에 찌든 생활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편안한 공간을 꿈꾸도록 만들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나의 이기심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 한쪽에, 어떤 못생긴 나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너 혹시 〇〇랑 연애하니?"

내가 〇〇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된 것은 그녀 때문이라고 난 그 후 1년여가 지난 얼마 전까지도 굳게 믿고 있었다.

새내기 시절, 그녀와 난 처음 소속감을 갖게 된 집단에서 비교적 성격이 잘 맞는 동기였다. 여성이란 이유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잘 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듣기 싫었으며, 때문에 일부러 '남자 같다'라는 말을 듣는, 얼핏 보기에 매우 비슷한 우리였다. 그런 나의 성격이 그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어차피 '우리'는 '예쁘고 그러므로 착한' 여학우가 될 수 없었다. 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여성임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정 '받느'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남들로부터 인정 '받아' 했다.

그녀는 <엄마>였다. 내가 소위 과격한 성격으로 그남들과 툭타거릴 때에도, 두 살 많은 그녀는 엄하고 때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그남들을 대했고, 평소엔 '남자'였지만 MT에서는 모든 굶은 일을 혼자 해내는 어머니 그녀에게, 그남들은 온갖 미사여구로 그녀의 노고를 치하했다. 방바닥에 앉아 그저 처먹으면서 말이다. 슬프게도 그 순간에 내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위기와 절망이었다. 난 그녀만큼의 자리를 내 공간에서 빼앗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 치달을 때쯤 내가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은 우습게도 <연애>였다.

그녀와 난 쇼핑을 함께 다녔다. 그녀는 그남들의 시선으로 내 옷을 골라주었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

녀와 난 그남들의 생일선물을 고르러 다녔고, 내 생일에는 그녀가, 그녀생일에는 내가 선물을 골랐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사이좋은 역분을 하고 있었다.

내가 바라던 것은 그남들이 날 여성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으나, 난 그남들이 아니라 그녀와 선물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와 난 거의 매일을 함께 했음에도 함께했던 적이 없다. 언제나 우리 뒤에는 그남들의 망령이 붙어다녔다. 난 그남들을 위해 힘썼고, 그녀도 그남들을 위해 애썼다. 그남들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쇼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좋아했다. 난 그녀를 제일 먼저 챙긴 적이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녀에게선 상처를 받았다. 시간이 흘렀고, 연애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절망과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그 집단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헤어 나올 수 없는 상실감과 두려움 앞에서 제일 먼저 원망했던 것은 그녀였다. 난 스스로가 그남들과 같기를 바랐었고 그녀에게 있어서도 다를 것 없는 존재였지만, 그녀만큼은 그남들과 다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알아주기를. 나를 안아주기를. 그리고 내게 상처주지 않기를> 그러나 그남들과의 관계가 끝난 날부터, 그녀와 나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는 그남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운 모습이었다. 난 새로운 공간과 나의 여자친구들을 찾았고 조금씩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떠올랐다. 여전히 그녀와 나는 그남들을 빼고는 5분 이상 이야기하기도 힘들었던만큼, 그럼에도 그녀가 각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나를 스쳐지나간 수많은 그녀들을 떠올려 본다. 행여나 길거리에서라도 우연히 마주치는 날이면, 우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본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갈 곳을 잃고 부유하게 될 나의 그림자 그녀들.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기 위해 그렇게나 애썼음에도, 원하던 '공간'을 얻을 수도 없었고 경쟁을 끝낼 수도 없었다.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그었던 그녀와 나의 관계. 그러나 나는 이제 그녀에게도 '그녀의 공간'이 생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기를.

—더불어 그녀와 내가 서로를 알아보고, 안아주고 그렇게 함께 설 수 있는 그녀와 나만의 평온의 공간이 나타나게 되기를—

여자친구 동거일지

1. 결혼, 온 백지였다.

결혼 제도의 끔찍한 양면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 여성주의자(꼭 여성주의자가 아니더라도)라면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님과 결혼할래'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을 듯 하다. 현실의 엄마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남편은 불륜 뛰어난 배를 가진 가부장이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며 유세를 편다. 온 정성을 다 해 키운 아들은 연애를 하더니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철부지 딸을 간신히 대학에 넣어놓

았더니 지 혼자 잘났다고 바락바락 대든다. 무지막지한 가사노동, 살림, 시댁과의 신경전 등등... 너무 많이 나갔다. 이 글은 결혼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글은 아니니까.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묶여 화목한 가족을 연기해야하는 건 어떤 의미로 더욱 끔찍하다. 그 대안이 '여자들의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것도 꽤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겠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유용한 구석이 많다는 건 사실이다.

2. 오프인 여자들의 동거 - 여성,그녀,당고의 동거 일지

룸메이트를 택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경제력'의 문제이다. 혼자 살면 방세가 비싸기도 하고, 전세를 구할 경우에 전세금을 여자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다. 사람이 많아지면 싸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라 공과금도 나누어서 내며 싸지기 때문에 물, 전기, 가스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낭비하면 안되겠지) 만화책을 빌려와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다!

나의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동아리의 언니들과 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우리 학교의 기숙사 제도를 볼 때에, 새롭게 방을 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언니들과 함께 집을 구하게 되었다. 방을 구하러 3명이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방 2개와 부엌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 집을 구했다. 나를 제외한 2명의 언니들(당고와 고구마)은 녹두에서 자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과 부엌이 여자들끼리만 쓸 수 있기를 강력하게 바랐다. 남자들과 화장실을 공유해서 쓰는 경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고 찻집 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도 불편하고 밖에 있어도 불편하다. 또 대체로 소심한 여자애들을 제외한 남자아이들은 먹고도 잘 정리를 하지 않아서 공용으로 쓰는 싱크대가 더러운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사를 하고 2년 동안 그녀들과 함께 살았다. 방이 2개였는데, 나는 따로 방을 썼다.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서 따로 써야 한다고 뻔뻔 우겼지만, 그녀들도 방에서 담배 피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장 좋은 건,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심심할 때 놀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3명은 학번이 다르긴 했지만(99. 00. 01) 모두 같은 동아리에 여성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바가 많았다. 학교에서 썩는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밤에 놀러가거나,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학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욕하는 것도 재미있었던 것이다. 술이 생각나면 술을 사와서 마시고, 노래방이 가고 싶으면 '야, 갈래?'하고 나가서 놀았다. 꽤나 즐거웠던 시간들 :)

3. 새로운 이그당, 그러나 에게니가자.

다른 사람과 살 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가사노동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끼리 서로 키득거리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에게에는 누구나 2가지 성향이 있는데,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자신이 아닌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둘 다 하는 사람, 두 개다 안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위의 '깨끗함'에 대한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가사일을 공정하게 분배하기란 꽤나 어렵다. 이럴 때 어디나 그렇듯이 - 초기에는 열심히 당번을 정해서 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은 '일을 하기보다 돈을 쓴다'였다. 생활 패턴이 무척이나 달랐던 우리들은 (집에 안 들어 오기는 일수, 밤과 낮이 바뀌는 게 일상) 꼬박꼬박 밥을 찾아 먹는 것이 귀찮았던 지라 나가서 사먹는 걸 택했다. 또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안 만들기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노동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여 먹지도 말라) 하지만 나름대로 나는 깨끗하게 하고 사는 걸 좋아해서 적당히 언니들과 타협선을 마련해서, 날짜를 정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당번제로 쓰레기를 버렸다. 빨래도 누가 빨래를 돌리면 누가 널고 개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가사일을 정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았음으로 우리는 게으르다)

가사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정하는 건 여성주의자라면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혼자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집안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깨끗함의 수위를 정하고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가사일은 연속적인 일이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버리기를 정말로 공평하게 딱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 적당히 눈치 봐서 알맞게 청소하는 습관을 가지되, 너무 게으른 년에게는 철퇴를 날려주자.

또 같이 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이 경우 방이라도 따로따로 있으면, 한 방을 쓰는 경우) 어떤 의미로든 그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불편함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 쉬고 싶을 때,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문제가 된다. 우리 집에는 댄서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브리트니의 신곡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밤을 새며 시끄러울 것을 각오해야 했었다. (브리트니가 1년에 2번 정도 신곡을 내서 정말 다행) 또는 서로의 시험 기간에 음악이 듣고 싶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졸업의 압박으로 인해 서로를 배려해주면 된다.

타인을 데려올 때도 문제가 된다. 일단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 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남자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처음 같이 살게 될 때에 '남자는 집에 들이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금남의 구역으로(가끔 깨질 때도 있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우리가 활동하는 곳이 동아리나 여운단위라서 서로 알만한 사람들을 다 알아 인간관계에 그다지 불편함이 없었지만, 연애를 해서 둘만의 폐쇄적인 공간이 필요할 때 약간 미묘한 불편함은 있다. 집이 좀더 넓었으면 문제가 덜 났겠지. 서로 모두 친구가 되어서 즐겁게 놀면 된다.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_-)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때에는 대화가 아주 중요하다.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서로 할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서로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따끔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관계, 밤에 놀러가서 즐겁게 놀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우리집 사람들. 흐뭇.

4. 가족, 오랜 선택지.

지금은 진학과 졸업, 각자의 취향으로(3개월쯤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해서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마음 맞는 여자친구들끼리 산다는 건 인생에서 고려해볼만한 선택지인 듯 하다. 적어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여성이라면 노후나 삶의 문제, 커뮤니케이션, 경제력 등 믿을 수 있는 룸메이트를 구해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도 좋을 테니까. 별다른 인생의 서광이 보이지 않는 나로서는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내 가족은 내가 선택해야지. 그럼그럼.

여학생 환영제 - 국사새날

여환 - 새날

국사/새날 여담의 이름을 걸고 여학생 환영제 하다

장소 : 스트링

참여인원 : 약 25명 정도의 03~98여학우들

사용금액: 20만원은 넘었음

여성공간 만들기

(조달 방법: 1차 쿠폰판매-여선배들에게는 강매, 남선배들에

게는 강매적인 권유- 2차 당일날 돈 모아 걷음, 3차 학생회비 만뎀천원 조달)

프로그램

1)노가다 심리테스트 - 여성인 당신, 어떻게 사회에서 매장당하는가?

2)별명짓기 - 나왔던 별명들: 양말 가가멜 농활- 소공녀 토끼 방울이 햄스터 녹차배지밀 감자 가위소리 볼 등등등

3)오엑스 퀴즈 - 성에 관한 지식 테스트 1등은 지현이와 선우, 상품은 '아주 작은 차이'와 허브

4)토크박스 - 나왔던 주제들: 연애, 엑스터시, 마초, 변태, 등등등 - 정말 할 얘기 많은 주제였음. 아마 연애 하나만으로도 10년은 얘기하지 않았을까? ^^

5)조각그림 그리기 - 이른 여자에 그림을 따로 그려 모아 붙였음. 과방 밖에 붙여 놓았다아.

6)노래배우기 - 바위처럼을 개사한 남자처럼, 일이 필요해, 변신생 등등

앞으로의 나아갈 길

1)여학우 모임의 정기화

2)조각그림가지고 뒷담화를 했던 사람들을 대처할 방법-헛

3)여담의 충분한 역량 확인했고, 앞으로 세를 늘려나가세 베이베~

> 작년 여학생환영제가 끝나고 쓴 정리글이었다. 일년이나 지났다니 신기할 뿐.

2학년이 되어서 심각하게 주도적으로 시작했던 몇 가지 일중에 하나인데, 03년 이전에도 과반에서 이렇게 여학생 환영제를 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단대나 총학차원이 아닌, 새날반이라는 작은 과반 속에서 그것도 선생 여성운동모임의 이름을 걸고 했으니 감회가 새롭다.(사람들이 이 행사를 여담의 그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 과반에서 첫 여학생환영제를 했던 03년에는 다른 과반에서도 과반 차원의 여학생 환영제가 있었는데, 어떤 과반은 '여학생환영제'라는 이름을 걸고 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우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① 과반 내의 여성주의적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았다. ② 여성주의자들의 증가와 세력의 확대가 있을 텐데, 지금 꼴로 보아서는 2년이 좀 더 이유가 컸던 것 같다. 1번도 아니라고는 못하므로, 여학생 환영제를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과반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항상 드러워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사람.

여학생환영제를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위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머리에서 할 수 있었던 최상이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는 조금 미비한 것도 있었는데, 반짝이는 여성주의자들의 아이디어라면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심리테스트 - 20여명의 여자친구들이 왔으므로 7-8명으로 조를 갈라서 세 조를 만들었다. 따라서 심리테스트도 세장이 필요했다. 전지에 크레파스로 전날 다 손으로 적었다. 크게 펼쳐놓고 해야 하는 재미가 있을 테니. 한명씩 심리테스트를 하며 각 글의 얘기를 하며 노는 것이었다. 즉 심리테스트를 통해 나온 유형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심리테스트의 과정을 통해 토크 어바웃을 하는 것이 중요했던 셈. 심리테스트는 적당한 것으로 골라서 하세요.

2) 별명짓기 - 조별로 별명 지어주는 건데, 컷속말로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야기해 결국 마지막에 나온 것이 주인공의 별명이 되는 게임으로, 많이들 아실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체 과반 모임에서처럼 짓궂거나 장난스러운 인간을 잘 제어해야한다는 것. 새내기들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다 되도록 좋게 말해주는데 일부 불순분자들은 이상한 단어들을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이상한 별명을 만들어 낸다. 선배들은 되도록 좋게말해 주도록. 그래서 '초롱이' 같은 예쁜 별명을 달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다. (작년 내 별명이 '농활'이라면 할말 다했다 TTT)

3) 오엑스퀴즈 - 사람들에게 오엑스 팻말을 하나씩 준다. 팻말은 나무젓가락에 동그란 오 혹은 엑스의 팻말을 붙인 단순한 것이다. 사람들이 앉아 있고 사회자가 내용을 말하면 새내기들은 팻말을 든다. 퀴즈의 내용은 성 지식인데, 이를테면 '생리 중에는 피임을 할 필요가 없다' 모 이런 것들이다. 마지막까지 남는 친구를 위해 재미있는 여성주의 서적이거나 만화 따위를 선물로 주도록 하자.

4) 토크박스 - 이것은 박스를 굴러서 거기 나온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두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시간동안 한 가지 주제도 이야기하기 힘든 시간이었다. 차라리 중심적인 주제 하나를 선정해서 그거 하나만 얘기하던지, 좀 뽀짝할 것 같다면 다른 게임 형식으로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주제는 변태, 연애 등이었다.

5) 조각그림그리기 - 유명해서 할 말도 없다. 이것은 토크박스를 진행하면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 환영제의 중반쯤에 진행해서 끝나기 전에는 완성된 모습을 애들이 보면 좋다.(여학생 환영제의 관건은 행사 종료를 열시 반 전에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TTT 이날마저 혼자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만들 수는 없오오. 행사를 즐기더라도 시간을 짧게 하도록 하세요. 시간이 남으면 다같이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거나 쿠키 다 만든 것은 과반에 철썩 붙여놓도록 하자. 후후

6) 노래배우기 - 편찮기는 한데 시간이 넘 많이 먹힘. 차라리 조각그림을 그리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도 좋을 것 같다.

*기타 팀(갑자기 존칭으로 급변)

1) 중요한 것은 시간! 아까도 말했지만, 행사를 정시에 시작해서 늦지 않도록 하세요. 6-10시까지가 적절한 듯. 부시력대고 정리하다보면 시간이 더 가니까, 10시에 끝내도록 하세요. 그날도 '언니 언제 끝나요?'라는 말 한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TTT

2) 돈돈돈 - 위에 적었던 것처럼, 일차적으로 쿠폰을 파시도록 하세요. 언니들이 잘 사줍니다 쿠키. 그리고 뜻이 있거나, 만만한 남자선배들한테도 팔아요. 비싸게 팔아도 좋습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니가 할 일은 돈 내는 것밖에 없단다" 라고. 그리고 당일날 2-3학년들이 오천원만원정도 내면 돈이 되요. 학생회비를 원조?해달라고 해도 좋을 듯. 너무 많이 받아도 이상하므로... 적당히 부족금액정도만 지원을 받으세요.

3) 초대장 - 새내기들한테는 좀 많이 이쁘게 초대장을 만들고, 여자선배에게는 쿠폰을 예쁘게 만들

어서 초대장과 쿠폰을 겹해서 주도록 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한명씩 만나면서 얼굴도 익히고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4) 그리고 보니 우리가 많이 참조했던 글이 예전의 '만두빚기' 자료집이었군요. 여성주의자의 자료집 수집벽은 중요. 만두빚기에서도 많이 참조하세요~

5) '여학생 환영제 홍보' - 여학생 환영제의 의미나, 흔히 말하는 '남학생 환영제는 없나요' 등에 대한 자료를 과반에 붙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이후 평가 때 '남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나왔었는데,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6) 여학생 환영제를 여학생 모임으로 지속시키려면 - 이 날의 좋은 기억을 품은 여자친구들이 많았는지, 그 이후 있었던 여학우 개강잔치 등에 정말 많은 여자친구들이 왔었다. 특히나 과반에 잘 나오지 않는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1학기를 정신없게 보낸 2학년으로서 2학기 개강을 맞을 때 까지 그녀들과 거의 얼굴을 맞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반성을 하게 되었다. 적어도 학기에 두 번쯤은 해야 지속성을 지닐 수 있을 것 같다.

농대여학생환영제

이 글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어찌 보면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처음으로 여학생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과오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며... T.T

>> 구성과정

농생대 학부생중 여학생의 비율은 30%정도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과에서도 여자선배들은 더욱 보이지 않는다. 이걸 결코 공동체문화가 아니면서 공동체라 주장하는 대학의 남성중심적인 문화 탓이리라.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자후배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 함께 이야기해주고 조언해 줄 사람도 없는 현실을 반복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 적은 여자 선후배 사이, 여자동기들 사이마저도 남학생들로 인해 경쟁상대로 돌변하는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이에 신입생 여학우들이 학내에서 여성의 경험을 긍정하고 과반을 넘어서 언니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진정으로 여자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또한 여성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여성주의 성교육을 준비하였다.

>> 준비과정

농대여모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한 것이 처음이라 준비가 미뒤효는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 준비 팀들이 없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전에 준비 경험이 있다면 다음을 위해 팀을 남겨두시길.

◇ 역할분담

여학생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각자 주요 역할을 분담하였다. 홍보, 기획, 정책, 연대사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소수인지라 1인당 한 부분씩 맡게 되어 부담이 있었지만 역할분담은 중요하다. 물론 게시판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공유와 이후 평가가 꼭 필요하다.

◇ 시간정하기

2003년 3월 5일 4시 ~ 8시 예상.

→ 단대수준의 여환제의 경우 각 과/반 신입생들의 수업 끝나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그보다 시간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물론 언니들의 시간도 같이 알아보면 좋다.

끝나는 시간을 알았다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날을 잡는다. (여환제의 경우 자칫 과/반 신입생 환영제와 겹칠 수 있으므로 미리 정하여 각 과반에 전달하는 방법이 좋다. 과/반 사정을 다 고려하다보면 여환제는 4월에나 가능할 지도 모른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준비가 늦어져서 5시가 거의 다 되어 시작됐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왔지만 늦어지는 동안 같이 얘기할 선배가 너무 적고 그나마도 있는 선배들도 행사준비에 바빠서 중간에 가버린 새내기들이 많았다.

이런 경우 오히려 여성모임에 더욱 불신을 갖게 되기도 한다.

◇ 장소예약

81동 203호 (농대가 이전하기 전이라 지금은 공동기기실로 사용되는 81동을 예약했다)

→ 자기 단위에서 강의실 빌리는 방법은 미리 알아두자. 장소예약은 꼭 홍보 전에!! 수업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예약해야 한다. 201호로 예상하여 홍보를 했는데 강의가 있다고 하여 당일 뒤늦게 203호로 바뀌었다. 중간에 바뀌면 자칫 못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강의실을 빌려서 한다면 자리배치를 좀더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수업을 들을 때처럼 앉아 있는 것은 자칫 선배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아진다. 둥글게 앉을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거 같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도 좋다.

◇ 대여/준비 물품

엠프, 마이크(꼭 필요하지는 않다), 빔프로젝트, VTR, 비디오 테이프, 유인물(교양자료)

◇ 홍보

자보, 온라인 홍보, 강의실 선전, 과 여환제를 이용한 홍보, 과 학생회를 이용한 홍보

→ 자보는 아주 인상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필을 잘 못하는 듯. 시기적으로 강의실 선전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였는지 의외로 강의실 선전을 듣고 온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해의 경우 총학생회 선거로 인해 어떤 흐름이 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농대의 경우 새내기들이 단체로 듣는 생물, 화학, 수학 등의 시간이 있어서 강의실 선전이 유리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과 학생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 예산

생리주기 팔찌용 구슬값 : 60000원

다과회 간식비 : 80000원

기념품(콘돌)비 : 30000원+포장비 6000원

합계 176000원

→ 생리주기팔찌 재료가 의외로 비싸다. 예산을 저렇게 짜고 나니 예쁜 구슬을 살 수가 없었다. 가장 싸고 맛있는 재료가 50(+q)명분에 55,000원 정도. 예산을 구해올 곳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견었고 행사 이후 학생회에서 조금 지원받았다. 학생회에서는 잘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지원이 어려운 단위의 경우 미리 지원 받을 곳을 뚫어 놓는 것이 좋다.

>> 당일

단대 여환제라고는 하지만 과/반에서 모아오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새내기가 20명 정도만이 모였다. 강의실 선전효과로 인해 여러 과/반 여학우들이 참석하였던 점이 의미 있다.

◇ 프로그램(예상)

4시 사전마당(영화'밀애'상영)

6시 본마당

환영사, 여모소개발언 겸 발족, 3.8소개발언

문화제(초청공연)

뒤풀이(다과회, 생리주기팔찌만들기, 별명짓기, 마임배우기)

→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준비를 한 경험이 없어 많이 부실했다. 홍보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빠지고 시간이 미뤄져서 아쉬움을 남겼다.

* 영화: 수업이 일찍 끝난 친구들이 늦게 끝나는 친구들을 기다리는 겸~ 새내기 홍보효과 겸~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계획은 좋았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빔프로젝터를 못 빌려서 쫓 났다는 사실!! 게다가 그 시간을 때울 게 없어서 전체판이 부실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 초청공연이 완전히 빠지면서 그 시간에 선배들이 마임을 했는데 배우기까지는 못하고 선배들이 보여주기로 끝이 나 버렸다. 새내기들이 생각보다 여환제 같은 자리에서 마임배우기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자리 배치도 한 몫 한다. 우리는 책상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여환제를 진행했다.

* 생리주기팔찌 만들기: 당일 사오느라 행사에 늦게 도착했다. 장소 찾고 구슬 고르는데 꽤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동대문 신평화 시장에서 산 걸로 기억한다. 만드는 방법을 필히 숙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생리주기팔찌 만들기는 절대 피임을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몸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몸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선배들과 이런저런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새내기들이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못하고 일찍 가는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이 만들어주는 등 아쉬운 점이 많았다. 둘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하며 들어가며 만든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여환제를 하면서 농대여모 소개를 하며 발족식과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지라 이후에 몇몇 새내기들이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 새내기들에게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오해

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남학우 교양

실제로는 진행하지 못했다. 진행할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여환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에는 남학우들이 그 시간동안 여환제의 의미와 여성주의 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시간에 실제로 이야기가 오갈지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나을 듯(너무 비현실적인가? 글썽)

◇ 연락처 받기

각 과/반 단위에 연락되는 선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여한 새내기들에게 꼭 연락처를 받아두도록 한다.

>> 평가

(이주 우울했음)큰 평가는 없었고, 준비를 상당히 철저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과/반 선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후에 과/반 여환제를 하였는데 선배들이 후배의 반 정도만 되어도 이야기가 잘 흘러나간다. 또한 기껏 만든 새내기 여학우들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기필코! 농대여모와 2주에 한 번씩 저녁 식사 모임을 지속시키려 했지만... 여환제 이후 3.8행사에 연락하고는 한 번도 만나질 못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법대 여우야 友友夜

법대에만 존재하는 1박 2일의 여학생 환영 엔터테인먼트인 “여우야 友友夜”는 2001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첫 번째 여우야를 준비한 언니들의 당시 글을 읽어보면 이 행사가 얼마나 ‘하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하였는가를 절실히 알게 해준다. ‘하고 싶은 욕구’ 혹은 ‘만나고 싶은 욕구’라 불러도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우야의 기획의도를 설명하는 글에서 언니들은 부재되어있는 여학우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고, 권력적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법대의 기존 문화가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성을 지적하지만 그 글의 마무리는 다음과 같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저 보다 즐겁게 놀고 싶었을 뿐”

1박 2일의 여우야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여학우들과 만나고 싶다는 절실한 바람에서. 올해 4번째 여우야가 준비되고 있지만 이 바람만큼은 처음 여우야가 시작되던 때와 동일하다. 우리는 새내기 여학우들과 기존의 새맛이 행사와는 ‘다르게’ 만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쫓겨나있었던 대학의 남성적인 문화와는 ‘다르게’ 놀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우야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저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싶었다는 그것. 여학우들끼리 모여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어찌서 그동안은 그렇지 못하였는가가 드러나기에 여학우들이 모인 모든 공간이 그렇듯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정치적이고 가능성을 내포한 공간이 된다.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만 사실 여우야는

그저 여우야. 우리끼리 모여 하룻밤을 놓고 돌아오는 말 그대로 여자친구들의 밤이다.

2001년이 지나고 02, 03, 04에 이르면서 어느새 여우야를 소개하는 글에는 ‘여자친구들의 밤’이라는 이름 소개와 ‘여학생 새터’라는 수식어가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학생 새터라는 수식어가 여우야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마치 여학생과 남학생이 모두 함께 가는 새터는 따로 있고 여학생 새터란 여학생들끼리만 가는 부수적의 예외적인 행사라는 느낌은 여학우들끼리 모이는 행사가 그저 소수자들의 모임으로 그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그렇기에 여우야를 여학생 새터라고 부르기에는 놓치고 있는 지점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매번 새터가 끝난 후 개강 직전에 다녀오던 것을 이번에는 새터 가기 전으로 앞당겼다. 날짜가 안나오기도 했지만 새터보다 일찍 가는 것은 새터에 가면 반과 학회로 뿔뿔이 흩어질 법대 새내기 여학우들이 미리 얼굴을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첫 만남의 설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준비과정

올해 4번째를 맞는 여우야는 어느새 공식행사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기에 적어도 여학우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올해는 1월 초 즈음부터 여우야를 준비하고자 하는 선배들이 알음알음 모여 준비모임을 꾸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작년까지는 법대 내에서 활동을 하는 여자 선배들끼리 모여서 프로그램을 짜고, 자료집을 내고, 장소를 알아보고, 홍보를 하는 등의 여우야 준비 전반에 걸친 일들을 하는 식이었지만 올해 부터는 여우야를 준비하는 모임 자체가 다시 한번 법대 내의 여학우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었다. 새내기 여학우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비근할 정도로 여기 저기 숨어있는 여자친구들이 모여, 여우야에 가서 무엇을 하고 놀 것인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반가움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하고 싶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여우야가 그저 다녀오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여학우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없는 경험이기도, 이 흥성스러운 행사가 흥성스럽게 준비될 수만 있다면! 여우야 준비모임이 또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었다. 그래서 준비모임을 시작한다는 공지를 반과 학회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뿌리고 역시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자보도 띄울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자보나 웹상의 광고는 생각한 것만큼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생각만큼 많이 모이진 못했다. 그래도 작년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법대에서 일년을 보내며 여자언니가 좀 더 있었으면 했던, 여자친구가 조금 더 많았으면 했던 바람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 새내기 여학우들에게 그런 언니,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못 만나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했다.

준비모임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여우야를 주최했던 언니들과 작년평가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팁-숙소, 교통비, 돈- 문제 등등을 얻었다. 모여서 작년 프로그램 등등을 하나씩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내고, 자료집을 검토하면서 자료집에 넣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논의했다. 초반에는 논의가 약간은 늘어졌지만 준비모임 수차례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고 대략 5번의 모임정도에는 프로그램과 자료집이야기까지 검토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여자친구나 여자언니가 필요하던 이야기, 법대에서의 일년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이 조금

씩 조금씩 나오고 있다.^^

좀더 실무적인 일로는 숙소 문제, 홍보 문제를 함께 진행해야했다. 숙소나 교통편을 알아보는 것은 준비 모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02이상의 사람들이 시기에 늦지 않게 논의사항으로 가져왔고, 사전조사 - 답사를 다녀와서 보고하고 승인하는 식으로 결정을 했다. 이번에 결정된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많이 불편한 곳이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02년도에 버스를 대절했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았기에 진퇴양난격이었다. 그런데!! 새터 버스를 대절하는 곳에 같이 예약하면 좀 싸게 대절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제기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이 되어 02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버스를 대절할 수 있었다.

홍보는 우선 다른 새맛이 일정과 함께 진행했는데, 새내기 여학우들에게는 합격증을 배포할 때 나누어주는 자료집에 여우야 홍보를 하는 "예쁜^^" 리플렛을 넣어서 같이 주었고, 예비대학 및 새터들을 홍보하기 위해 신입생에게 전화를 할 때 여우야 이야기도 꼭 해달라고 새준위(새터준비위원회)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역시 눈에 띄는 '그림 대형자보'를 법대 곳곳에 붙여 신환회 등이 있을 때 새내기 여학우들과 03이상의 여학우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하기로 결정했고, 03이상의 여학우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여우야 날짜와 소개를 하는 웹자보를 각 학회 커뮤니티에 돌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여우야 준비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반 학회에서 친구들 데리구 오기!라는 사명을 띠고 있다.

올 해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은 남학우들에게 여우야 이야기를 건네야 한다는 문제점이었다. 사실 4번째가 되어 오다보니 연례행사처럼 자리매김을 하여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여전히 남학우들은 "거기 모여서 무엇을 하냐"는 호기심어린 반응을 보인 후 꽤나 많은 부정적인 혹은 써니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여우야에서는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삼질 및 작업을 경계해야한다'는 다소는 거칠다면 거친 연애담론이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왔는데 남학우들은 여기에 크게 거부감을 느끼는 듯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거기 모여서 남자애들 만 나쁜X 만드는 거 아니냐", "순진한 새내기 여학우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노골적인 반응들을 보인다고 하던데 우려해야하는 부분은 남학우들의 '반감' 그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형성하는 이 반감이 여우야를 경험하고 돌아온 여학우들조차 여우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건가'라고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여우야 이후 여학우, 남학우를 막론하고 대학 생활을 주도해 나가는 남자선배들의 써니컬한 반응의 연속은 여학우들에게 여자아이들끼리 모이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무언가 모여서 의미 없는 불평이나 겁주개-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된다. 물론 그것은 어느 여학생 환영제가 갖는 고질적인 문제인 연속적인 여학우 모임의 부재에도 일정 정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솔직한 느낌이 아닌 그들의 시선으로 여우야를 기억하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여학우들이 모인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것, 특이한 것-좋지 않은 의미에서-등으로 폄하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여우야를 준비하러 모인 이들이 공통적으로 '여학우'라서 느끼게 되는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우야의 취지는 '반 남학생'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는 점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우야 그리고 연속될 여학우들의 모임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서설이 길었지만 그래서 남학우들에게 여우야가 생기게 된 취지를 설명할 자보를 내기로 했다. 그것이 핵심!!

>>프로그램

1) 여우야 출발부터 첫째 날, 둘째 날에 시간 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순서적으로 체계화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재밌게 놀다 오기위해서!

대충 "오전 11시경에 학교에서 모이기 - 점심 먹기 - 출발 전에 학교에서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떠날 것인지 결정 - 출발 - 도착 후 프로그램 - 저녁 먹기 - 밤 time - 아침 - 다시 서울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02년까지는 둘째 날에 오전 프로그램을 하고 점심에 출발하였는데 아침 일찍 떠나는 사람도 많았고, 밤새 지치도록 수다를 떨고 아침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평가가 많아서 03년부터는 아침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2) 조 나누기.

몸그리거나 인생곡선 같은 경우는조를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친밀한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좀 더 참여하는 기분이 든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역지로 준비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느낌도 들기에조를 나누어 진행을 하는 것이 대규모 인원이 가는 행사에서는 더욱 좋다. 이 조 나누는 것 자체를 강제로 나누거나 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중.^^; 바나나 좋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3) 마임 배우기.

전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쉽게 재미있는 마임을 다함께 배운다. 03년도에는 "뽀로롱 꼬마마녀"를 했는데 동작도 쉽고 재밌어서 모두들 몸을 움직이며 어색함을 풀 수 있어서 반응이 매우 좋았다. 시간이 되면 새 마임을 준비모임에서 같이 짜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

3) 몸그리기

너무나 유명한 프로그램인 이 몸그리기는 조별로 둘러앉아 조원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지에 하나씩 그려 넣어 나중에 조별 발표시간을 갖는다. 하나씩 자기가 그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우선 잘 생각해 보지 않던 우리의 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과,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을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식상한 자기소개가 아닌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점에서 여자친구 한명 한명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규모로 모인 자리에서 몸-특히나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주로 이야기 하는데 -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얼마나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란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고, 많이 어색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4) 쪽지로 질문해서 답하기

몸그리기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인데, 몸그리기가 갖는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싶어서 나온 프로그램이다. 쪽지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적어 그것을 모아 한사람씩 그 쪽지를 뽑아 거기에 대답하고, 그 질문을 쓴 사람도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자신의 질문에 자신도 대답하여야 하기에 지나친 질문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기에 이를 보완해야한다. 아직 그런 의미에서 미완인 프로그램. ^^;

5) 인생곡선 그리기.

이것 역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01, 02년도 여우야에서 진행했던 인생곡선 그리기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인생곡선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던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역시 처음만나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내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힘들고,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어색한 분위기가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

6) 성지식 OX퀴즈 -> 골든벨로 바뀌요!!^^;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OX퀴즈를 진행해서 여학우들은 어느 정도 소외되어있던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게다가 상품으로 책도 준다! 보통 여성주의 입문서들인데 글 쓰고 있는 사람도 운 좋게 살아남아 "아주 작은 차이"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일찍 탈락한 사람들은 게임에서 소외되고 너무 경쟁적인 게임인 것 같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민하던 끝에 나름대로 인기 프로그램인 골든벨을 벤치마킹해 조를 나누고 주관식으로 문제를 바꿔 조원끼리 의논해서 하나의 답을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상품 역시 되도록이면 모든 조에 골고루 나눠주자는 의견도 함께~

7) 몸움직이기, Dance party.

02년도에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분을 초빙하여 눈을 감고 상대방과 함께 움직이거나 소리만 듣고 따라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진행하여서 너무 '빨쪼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03년도에는 그냥 모든 불을 끄고 "후레쉬"를 깜박거리며 조명을 만들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Dance party를 진행했다. 처음 시도 하는 것이라 나름대로 호응도 좋았고 여학우들끼리만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지만 역시 춤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분위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에 이번 여우야에는 마련되지 않을 듯.

그러나 우리끼리 모여 '우리만의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맞대고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며 춤을 추는 등의 지나친 무리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나와서 다음에 볼 예정.

8) Talk Box와 수다떨기

전체를 모아놓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각 방으로 돌아가 수다 떠는 시간이 계속 진행되었다. 02년도에는 talk box를 이용해 가사노동, 명절, 생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였지만 인위적인 분위기였다는 평이 많았다.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진행하기 힘든 프로그램인 듯. 그래서 03년도에는 그냥 삼삼오오 모여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수다 떠는 시간이 만들어 졌다.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듯.

그리고 술과 함께 다른 음료수나, 차 먹거리를 준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물론 원하는 사람은 술을 맘껏 마실 수도 있다. ^^

9) 음식만들기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의 의외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면 친해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올해 처음 시도해볼 예정이다.

>>자료집

01년도에는 여우야를 가던 당시에는 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녀와서 여우야 취지, 프로그램 소개, 다녀온 사람들의 후일담 글들은 모은 평가집이 나왔다.

03년도에 처음 자료집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여우야 소개, 자위이야기, 탐폰 이용기, 여성 사이트, 좋은 책 소개, 여성주의 시각으로 바라본 TV프로그램 분석, 연애 이야기 등을 넣어가서 자료집을 보며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자료집을 준비할 예정이고, 아직 내용은 정해진 바 없지만, 여우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지속적인 여학우 모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여학우의 의미와 소개, 수강신청 팀과 여학우가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강의 소개, 강의실 성폭력 이야기 등을 함께 풀어놓고 더 첨가할 내용은 더욱 첨가하기로 했다.

확실히 우리는 여자친구에게 목말라 있다. 그러나 그 목마름과 비례해서 여학우들끼리 모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기에 여우야는 그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이지만 한 번 모이는 것으로는 그저 환영제만큼의 의미만으로 그칠 위험이 높다. 여우야를 기반으로 부디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끈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기를 희망한다.

여학우커뮤니티 - 국사새날

1. 여학우 커뮤니티를 만들거까지

인문대 국사학과는 정원 30명 중 여학우가 3-4명 정도 있을 까 말까한 전형적인 남초과 중의 하나였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선배 여학우와 후배 여학우, 동기 여학우들끼리의 관계는 다행히도 좋은 편이었으며 여름에 여학우들끼리 엠티를 가는 등 소수이기에 가능한 행사들을 진행하곤 하였다. 이는 여학우들이 다수의 남학우들 사이에서 여성들만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과내 여성주의모임이 생기다 없어지거나 하더라도 여성주의 의식을 가진 여학우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01년 광역화 이후 새날반의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이전처럼 거대한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소규모의 여학우 모임, 여학우 엠티 등은 힘들게 되었다. 02년 몇 학회(과반 내 4개의 학회 있음)에서 학회 여학우 모임을 갖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이지는 못하였다. 과반 여학우들의 소통이 힘들어지게 된 상황에서도 성폭력적인 상황은 계속 발생하였고 여학우들이 이야기를 나눌 통로는 부족하였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에도 '모두'에게 공개된 과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는 껄껄하여 물어두는 일들도 생겼다. 월경과 같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이나 섹스와 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운동모임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여학우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세웠고, 02년 11월에 초대와 승인을 통해서만 가입가능하고 가

입하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 없는 비공개 커뮤니티의 형식으로 여학우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2. 커뮤니티의 구성

☆ 기본 구성

談笑(담소)라는 이름의 자유게시판이 있고 싸이월드의 구성대로 메모게시판, 그림게시판, 사진게시판(그녀들의 기억)들이 기본으로 마련되어 있다. 여학우들이 마음껏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게시판으로 만들고자 초반에 몇몇이 열심히 글을 쓸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의 낮은 인터넷 접근도로 인하여 게시판이 활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 익명게시판 談小

처음 커뮤니티를 만들 때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던 게시판이 익명게시판이었다. 기존 과반의 커뮤니티들에서 익명게시판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하고 모든 익명게시판을 폐쇄하였던 상황이었지만 여학우 커뮤니티에 익명게시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학우들이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과반의 성폭력적인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성과 섹스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얻어가고자 하는 등과 같이 실명이 드러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하기에 여학우 커뮤니티에서만은 자유게시판보다 익명게시판이 더 활발하여도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렵듯이 했고, 실제 상황도 그러하였다. 간헐적이긴 했지만 성에 대한 여성의 욕구나 섹스 경험, 생리 불순, 임신 공포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되면서 활발해진 않지만 여학우 커뮤니티의, 그 속 익명게시판의 존재가치가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 들들만한 유영지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멋진 여성단체, 가볼만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링크해 놓는 게시판으로 만들었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막상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당황하고 무기력해지기 쉽다는 점에서 새날반 여학우들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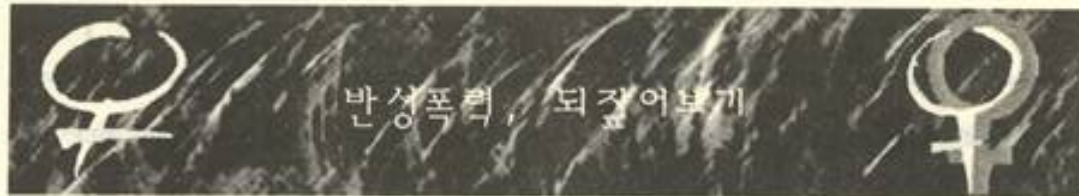
3. 커뮤니티 운영 명제와 여학우 모임

커뮤니티 개장 초기, '그 많은 커뮤니티가 난무하는 중에 왜 여학우 커뮤니티를 만들 생각은 못했을까'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며 많은 여학우들의 가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 공지를 통하여 쿼어 아카이브나 안티 아라키전 같은 행사를 여학우끼리 함께 가는 여학우 모임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야기하기가 매우 부끄러워진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실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낮은 인터넷 접근도와 게으름으로 그다지 글을 쓰지는 않기에 자유게시판에는 여성주의 행사나 여학우 모임 공지가 대부분이다. 또한 여학생 환영제, 여학우 개강잔치 등 여담에서 준비하여 성황리에 치러낸 몇몇 큰 여학우 모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여학우 모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과반 학생회가 세워지면서 여학우 모임을 학생회 공약으로 내걸어 학생회에서 여학우 모임을 몇 번 열었으나 연락 부족 등으로 극소수의 여학우들만 모였을 뿐이었다. 과반 내 다수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글을 여학우 커뮤니티에 올리려면, 글의

내용을 여학우들과 나누고 싶다는 목적의식이나 여학우들과의 친밀감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여학우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프라인 상의 친목이 보장되지 않자 글의 빈도수는 줄어들었으며 글 쓰는 사람도 한정되었다. 한편으로는 올리는 글이 여성으로서의 경험, 생각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도 있어서 그 외의 내용을 올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여학우 커뮤니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학우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여학우 모임과 병행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학우들의 커뮤니티라고 해서 여성주의적 지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것이라거나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도 일정 정도 버려야 한다. 여학우 커뮤니티는 여학우들을 계몽하고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올리는 내용은, 나누는 이야기는 여성들의 일상의 삶. 그 어떤 내용이라도 좋은 것이다. 여학우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여학우 모임으로 친밀감을 높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조그마하나마 시작되고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하고 긍정하는 과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단지 '문제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탄지를 걸 뿐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제제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0. 어떤 상황

.....어떤 단위에서 엠티를 갔다. 한 남학우가 여학우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해왔고, 이를 들은 몇몇 여/남학우는 기분이 나빴고, 그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엠티 가는 흥겨운 분위기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절그러워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엠티를 다녀오고 나서, 엠티 때 그 발언들에 문제를 느낀 아이들은 계속 고민했다.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직접 찾아가서? 하지만 문제는 비단 그 발언을 한 남학우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같이 웃으며 '유머'로 즐긴 모두에게도 있다. 사실, 그 '분위기'가 이 친구들에게는 더 불편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괴로웠다. 문제제기를 해도 제대로 된 논의나 반성이라고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공동체에 과연 문제제기 했을 때 남을 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한 학우가 엠티를 다녀온 지 1~2주일쯤 후,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에 문제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발언한 학우의 이름은 익명으로 하고, 엠티때 했던 말들과 그 말에 자신이 불쾌함을 느낀 것, 문제지점들을 적었다.

1. 반응 - 왜 그런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느냐

반응은 뜨거웠다. 온라인상의 논쟁이 그렇듯이, 몇 개의 답글과 수십 개의 한줄 리플이 줄줄이 달렸다. 왜 엠티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뒤늦게서야 이렇게 터뜨리느냐, 아무리 익명으로 썼다하지만 누가 한 말인지 다 알 수 있는 글이었다,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했어도 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려버리면 어떡하느냐...등등.

2. 문제제기한 '내용'은 어디로?

이쯤 되면 정작 문제제기했던 사람은 혼란스러워진다. 문제제기한 내용은 온데간데없이, 문제제기 한 방식에 대한 비난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느꼈을 때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함은, 분위기 흐리는 예민한 아이로 여겨질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문제를 느끼지 못했더라도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문제로 받아들이 수 있다. 사람은 언제나 일관된 사고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끊임없이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재구성하는 존재이다. 성폭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피해를 발화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스스로의 생각을 계속 검열하며 자신의 감정이 불쾌했던 것이 맞는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성폭력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많은 여학우들의 경험에 대한 물이해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성폭력적인 발언을 했던 남학우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하지 왜 한마디 상의(?)없

이 공개적으로 밝혀버리느냐는 비난도 상당했다. 이 비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피해/가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들이 속한 공동체 혹은 단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언어적 환경적 성폭력의 경우에 그 성폭력적 언어와 환경을 일상으로, 유머로 받아들이고 함께 즐기는 문제의식 없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발언한, 행동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인양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지점에서, 피해자의 피해경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 보고 '나는 당신의 이러저러한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지난하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권력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했을 때 가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보다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비난이 우선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경험에 대한 고민과 생각 없이, 문제제기하는 방식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입 다물라는 말과 다름없다.

3.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고민해볼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문제제기해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할 것인가?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겉히 받아들이리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과연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차라리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은가. 반성하고 고민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든 탄지를 건다. 진정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문제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다'일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혹은 피해자로 자신을 이름 붙이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를 느낀 사람이 복잡하고 지난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단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문제제기한 방식에 대해 문제 삼기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쳐보고 고민해야 한다. 피해자가 왜 그런 방식으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도,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동의한다고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성폭력을 주제로 기초 세미나를 하거나 교양을 진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찡찡한 마음을 안고 끝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터지게 싸우고 돌아선 날이면 오히려 낫다. 적어도 그것으로 사람들의 기존 통념에 균열을 낼 수 있었던 거니까.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과연 '피해자 중심주의'에 동의하였는가. 그러한 우리는 동의하였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며 특정한 상황을 들이밀었을 때 현실로 드러난다. 또한 더 나쁜 경우, 실제 그 사람들의 주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그들에 의해 2차 가해가 발생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 '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동의하는데, 그러니'라고 말한다. 반성폭력 학칙과 자치규약 제정 및 개정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관악에서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사건이 공론화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온데간데없는 것이 또한 관악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동의한다고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무엇이며, 실제 피해자 중심주

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부족하나마 이 글에서는 그 점을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는 피해자의 피해인식을 사건 성립 여부의 일차적 기준으로 한다는 것일 것이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가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혹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적인, 성폭력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를 개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과 남성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에 의해야 한다. 이는 성폭력이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폭력을 다시금 개별화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하는 것에 다른 아니다.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일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가장 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제 3자의 상황 인식이 각기 다른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성격을 지닌 성폭력은, 같은 상황이라도 경험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위치와 입장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하기에 많은 경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서로 원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라고' 어떤 언행을 할지도 모르지만,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같은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불쾌한 분위기'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제 3자가 성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이렇게 이미 성폭력 피해는, 불쾌함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관점으로 성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그건 성폭력이 아니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겪은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정당화하는 데력으로 '그건 성폭력이 아니었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겪은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피해 인식이 성폭력 성립 여부의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의 초점을 들이대는 가해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침묵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피해 인식을 통해 상황을 구성한다는 것, 성폭력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이처럼 성폭력 구성 여부의 일차적 기준으로 피해자의 관점을 사고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중요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인식에 기반하여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성립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지켜보거나 언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과 의견을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사건의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성립된 사건을 처리하는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일련의 처리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과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치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지도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꾸려지는 경우, 사람들은 비대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동등하게 간주하고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인식이지만 해결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폭력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꾸려지는 비대위의 처리 과정을 사법상의 절차와 비교하며 '편파적'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법 담론의 가해남성중심성과 법적인 처리 과정이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을 염두에 둘 때 그와 비교하여 비대위가 '편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비대위의 역할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 '끝'난다는 것은 법의 절차에서 끝으로 간주되는 가해자의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몇 년 징역의 처분을 내린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정황으로 이야기되는 특정 시공간을 벗어난 이후에도 그 상황에 대한 계속되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또한 그 상황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시달릴 수도 있고, 무기력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을 느끼거나 분노할 수도 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든 어디서든 가해자를 바라보거나 가해자가 언급되는 것만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상황에 대해 아무 거리낌없이 말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상황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피해는 단순히 한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처럼 '사건' 이후의 다양한 경험들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는 가해자의 사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을 '끝'낸다는 것은 피해자의 치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공간 분리해내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것이며 가해자의 사과도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가해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라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비대위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비대위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중립적', '객관적' 포지션이 아니라 피해자의 포지션에 서야 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공정한' 해결을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앞뒤 정황이 맞지 않을 때 비대위는 '객관적'으로 일단 둘 다 믿지 않고 사건 정황을 캐물어야 하는가? 상황 진술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때 둘 다를 똑같이 의심하여야 하는가? 아니다. 비대위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각자가 놓인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때 피해를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말이 앞뒤가 어긋나는 것과 피해자의 말이 앞뒤가 어긋나는 것은 '부정확하다'란 이유로 똑같이 취급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성폭력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릴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겪은 이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떠올리게 되거나 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굳이 어린이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그 경험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살

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생존을 위한 피해자의 망각 혹은 기억의 부정확함과 신경 쓰지 않아서 또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가해자의 망각 혹은 기억의 부정확함은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비대위는, 제 3자들은 피해자의 기억을 일단 믿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기억을 믿고 지지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기억이 '사실'과 '정확히 같음'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언급한 것처럼 기억은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 지워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기억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사건 해결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것은 피해자의 안정과 치유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해납성중심적인 사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존재함'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설명 방식을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경험을 왜곡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을 다시 답답하고 억눌리는 경험으로 느낄 수도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데 수반되는 망설임·어려움과 고통을 덜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안정된 상태에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말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피해자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힘쓰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선불리 '피해자 중심주의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을 '해결'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황이나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접수·조사·합의·공개'라는 일률적인 절차만을 중시하는 것,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며 문제제기하게 되기 쉬운 환경형 성폭력이나 공개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잣대로 대수롭지 않은 일, 이미 끝나버린 일로 여기며 말하는 것 등은 결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운운하며 피해자의 판단과 요구에 '만' 따르겠다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이름 붙인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가해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끊임없이 침묵할 것, 무기력할 것을, 당당하지 말 것을, 수동적일 것을 요구받는다. 또한 여성은 언제나 용서해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줄 것을 요구받는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는, 특히 여성은 가해자나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는 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관점을,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시 명료해 진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한다는 것은, 온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동의한다는 것은 중립적인, 제 3자로서의 '나'의 관점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립을 가장한 가해자의 관점이지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동의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동의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체화된 원칙으로서 존재해야 하며 그를 위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 공개의 의미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공론화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함께 하나의 원칙으로 사 고되어 왔다. 공동체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초기 반성폭력 운동에서 사건 공개를 고민했던 것과는 달리, 이후 이것은 고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공식과 같이 받아들여졌다. 즉, '성폭력 사건의 공개=사건 정황 자료+비대위 입장 자료+ 가해자 설명 공개사과문'이라는 하나의 방식이 그것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민 없음은 01년의 자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이러한 방식의 사건 공개를 꺼리는 상황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방식을 고민할 수 없게 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공론화가 갖는 의미와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던 각각의 자보들이 말하고자 했던 점들을 짚고, 실제 사건이 '임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가를 짚어보려 한다.

1. '성폭력 사건 공론화'의 의미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 정황과 처리 과정 및 결과를 공동체, 특히 가해자가 속한 단위의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를 통해 성폭력이 발생하게 한 공동체 내의 가부장적 문화에 문제제기하고,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체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폭력 해결'이라는 말은 다양한 실천들을 포함한다.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치유를 지원하고 재발을 막는 것은 물론, 가해자의 교화 역시 가해자가 속한 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것은 여운단위 혹은 비대위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 단위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의 공개가 필요하다. 가해자가 없는 사건 공개는 마치 소설처럼, 다른 공간의 이야기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다. 그것이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공개가 필요하며, 이는 또한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제3자로 인식되는 다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성찰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간 분리가 필요할 때 활동반경을 정확히 제한할 수 있는가. 가장 마주칠 가능성이 큰 물리적인 공간(과방 등)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강의실 등등 일상의 곳곳에서 마주칠 여지는 충분하다. 이때 어중간한 공간 분리는 오히려 피해자의 활동반경을 위축시킬 뿐이며, 피해자가 혼자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자 주변사람들이 가해자의 활동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도 가해자의 공개는 필요하다. 가해자의 공개를 통해서 가해자 주변 사람들은 가해자의 변화를 도우며 자신을 함께 성찰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함께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비도덕성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인지한다

면,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불러온 공동체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한다.

즉, 가해자를 포함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그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밝히는 것이고, 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사건 정황 자료, 비대의 입장 자료, 가해자 실명공개사과자료

사건 정황 자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구성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의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성폭력 사건이 읽히는 방식, 즉 철저하게 가해자의 시각에서 구성되어 드러나는 방식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성폭력으로 구체화되는가에 대하여 자료가 쓰인다. 피해자의 경험이 언어화되고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피해자는 온전히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을 갖게 되며, 그렇게 공개된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구성원 역시 그것이 성폭력이고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해 온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입장 자료를 통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공론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성폭력 사건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단초를 제공한다.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자료는 비대위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가해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변화에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가해자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자신 때문에 시끄러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피해자와, 공동체 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일 수 있는 여성들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를 가능하게 한 공동체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성폭력 사건을 발생시킨 원인은 가해자 개인, 혹은 남성중심적 문화 구조 어느 한 쪽만도 아니라는 점이다. 가해자는 단순히 남성중심적 구조의 수동적 실천자가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한 적극적 주체이며,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쪽 모두가 되어야 한다. 가해자를 '구조의 피해자'로 부각시키는 것은 개인의 구조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가해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가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은 물론 이후 가해자의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

3. 실제 사건 공개에서 나타난 문제지점들

이러한 의도와는 별도로, 사건의 공개가 사람들에게 읽히는 과정은 전혀 달랐다. 사람들은 피해자의 시각에서 구성된 성폭력 사건을 여전히 가해자의 시선으로, 마치 '야한' 소설을 대하듯이 읽었다. 사건이 공개된 자료 앞에 물려든 사람들은 그것을 본래의 의도대로, 즉 그것을 성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반성과 실천을 고민하기보다는 단지 하나의 지나치는 이야기거리로만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피해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비대위에 대한 2차 가해와 역공격들이 난무했다. 01년 대자보 사건에서 나타난 피해자와 비대위에 대한 무수한 비난과 공격 이후, 피

해자들은 사건 공개라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방식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다. 사건 공개 이후의 반응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또 다른 성폭력 가해로 다가옴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건 공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의 사건 공개 방식에서는 매우 힘들음을 의미한다. 사건 정황 공개를 통한 공론화의 시도는 선정적인 화젯거리로 받아들여지거나 무수한 역공격과 2차 가해에 노출되었다. 가해자의 공개사과문은 성폭력의 재발을 막고 가해자가 변화를 다짐하는 약속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 자신에게 작동한 사회 구조로 성폭력의 책임을 돌림으로써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해자의 죄의식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로 이용된다.

4. 병행 모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여전히 필요하며, 100인위의 경우와 같이 어떤 때는 가해자의 실명 공개가 '유일한' 방식으로 사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각각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 이전의 고민과 상황을 토대로 사건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식은 새로이 고민되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사건을 공개될 수도 있고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사건을 공개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자 치유와 사건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던 사건 공개의 의미에 대한 절실한 고민 없이,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으로 사건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성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일률적인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 공개, 그 이후

성폭력 사건을 공개, 혹은 공론화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사건 공개는 자칫 술자리에서의 비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치부되어 버리는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구성하며 피해자의 경험을 언어화시키는 작업이다. 또한 사건 공개는 성폭력을 한 특정한 사건에 머물러있지 않고, 공동체의 성폭력적인 환경에 문제제기 함으로써 가해자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성폭력 예방과 해결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사건 공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결과는 동떨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성폭력 사건 공개- 실명 사과 대자보'라는 어떠한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었다고 하는 것이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이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일 뿐 아무의 책임도 아니며 더구나 자신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압력으로 이어가거나, 핑크리 잊어버려버리거나

여성으로서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이였다. 그래서 대학이란 공간에서 소외된, 여자 친구들과 선후배의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고리가 필요함을 쉽게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막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급작스레 활동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 서글픈 기회인 '새터'에서부터 이야기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움직여나갔다.

1, 2차 회의를 통해서 이름을 만들고 나름대로 초반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집행부까지 꾸렸다. 이름을 만들면서도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인지라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고민이 많이 들었다. 그리하여 결정된 것이 '농생대'여성연대'모임. 농대에는 여성학회 등과 농경제사회학부의 여성국을 제외하고는 여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위나 모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선 개개의 여성들이 연대하여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상과 활동단위를 넘어서 단위 모든 여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을 희망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치 않았다. 그와 동시에 농대여모를 통해 각 과/반에 여성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작했다. 이후에 많은 모임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농대여성모임연대로 이름을 바꾸자는 논의까지 했으니까.. 호호! 그리고 이미 눈치 챘겠지만 농대여모는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한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단위 여학생들이 만들어나가는 곳이다. 또한 당시로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남성들에게 오픈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여성들만의 공간.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게다가 어쩌나 많은 사람들이 판지를 걸었는지 모른다.(아마도 새로운 여운단위를 만들 때면 어디에서나 들리는 그런...) 하지만 그러한 관심어린 충고(?)에도 명백히 할 것이 있었다. 우리는 단일하지만은 않은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했고, 그 속에서 어느 여성이라도 불안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곳은 이미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연대모임이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 남성이 함께 활동할 때 지금껏 발생했던 여성이 대상화되는 느낌과 은근히 수동적이게 되는 결과를 거부하고 여성들이 꾸려나가고 싶었다. 물론 상황적으로 봐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가지고 있다. 정말 멋진 여성주의자라면 남성들도 이해해주리라 믿고, 그러한 남성들의 애정 어린 도움은 결코 사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꾸려져서 2003년 새터부터 반성폭력내규 논의와 여성주의 강연회 섭외, 3.8여성의 날 홍보, 여모 홍보 등의 활동들을 하였다. 농대라는 곳에서 아주 많은 한계를 발견하면서 더욱 열심히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생각들 갖게 된 새터. 개강 이후부터는 여모 발족식과 함께 한 농생대 여학생 환영회, 3.8행사 참여, 축제에서의 여성주의 체육대회, 반성폭력 실천단 '얼음땀', 외부 행사 연대활동, 새움터 활동 등 1년 간 나름의 활동들을 펼치고자 많이들 노력하였다. 너무나도 목말라 하던 여성모임과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농대를 변화시켜 간다는 기쁨으로 바쁘면서도 힘내고 살아왔던 시간이었다. 물론 권위주의적인 선후배 체계를 깨고 여자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저녁식사 등의 모임은 기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금은 잠시 침체기.. 하지만 우울함을 먼저 뽐아드는 나라는 사람은 지금 농대여모를 잠시 침체기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 결의 했던 친구들의 지쳐감, 여모활동을 중심으로 고민하기 힘들어진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이 모이지 못하는 한계. 1년을 지낸 농대여모에서 다시금 고민할 단계에 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을 부대끼게 되며 여러 여운 단위들이 더욱 연대하고 지원해 줄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 글을 쓰다보니 기운이 더 나면서도 1년이 후딱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쉽기만 하다.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서두르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같이 할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야할 텐데 일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여성주의는 여성주의에서 멀어져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여성주의는 그녀들이 그 속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지치다가도 내가 농대 단위에서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여성학회에서 느낀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기에 여성들을 위한 단위들이 지치더라도 스스로를 긍정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을 낸다.

어찌하다보니 너무 솔직한 글이 되었네요.

농대여모는 지금 여학생들 준비를 하고 있고

곧 200동 1층에 여모방이 생긴답니다~ ^^

sulove.cyworld.com

PS 참~ 지금도 예쁜 이름을 못 지은 게 한이에요. 농대여모의 예쁜 이름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

새로 생긴 단위 - 국사·새날

드디어 일어서기까지,
국사·새날 여성운동모임 여담
(女/餘談)의 궤적에 대한 반추

1. 국사·새날 여성운동모임(준)으로 이름 붙여지게 여전.

02년 여름방학부터 00, 01 몇몇을 중심으로 국사·새날반 내에서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일, 성소모임 만들기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임을 가져왔다. (성소모임의 가칭은 '너무한 것들'이었던걸로) 처음 회의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기운차게 시작했었고 회의를 이끌어간았던 현경 언니의 주도에 따라서 지난 학기의 평가와 여름방학 동안의 세미나, 소모임의 형식 등을 대강의 틀을 잡을 때까지 논의했었다. 하지만 뚜렷한 동인이나 의지의 부족이었을까, 게으름도 한 몫 했겠지만 방종의 세미나는 기획에서 끝났고 논의모임은 조금 흐지부지 되는 듯 했었다.

이에 개강과 함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방. 기존에 해왔던 논의를 바탕으로 국사·새날 여성운동모임(준)에서 준비하는 2학기 6팀의 세미나 진행과 겨울 방학과 함께 여성운동모임의 발족을 계획했다.

세미나 시작 전까지 정확히는 '국사·새날 성소모임(준)'으로 우리들을 부르던 시기였던 듯 하다. 이 시기에도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인연에서의 인문대 반성폭력 자치규약 재개정 운동에 합류하기, 국사와 새날반 성폭력 사례 수집, 생리대 자보, 여학생 휴게실 논의 떠올려보면 기억하겠지만 몇몇 친구들이 반성폭력 자치규약 재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함께 했고, 월경에 관한 자보(by 장미)가 붙었다.

2. 국사·새날 여성운동모임(준)의 활동 시작.

성소모임을 알리는 자보와 함께 세미나가 제안되었다. 뜨거운 관심 - 어여쁘게 꾸며졌던 커리 신청 보드(?)를 기억하시는지 - 과 함께. 하늘색의 어여쁜 커리집이 나왔고 우리는 세미나를 시작한 것이다.

11월 2일 1st seminar 여성의 몸, 정체성, 외모

겨울 속의 신데렐라

새 여성학 강의 6장, 여성의 몸과 정체성

섹슈얼리티 강의 5장, 여성의 다이어트 경험을 통해 본 몸의 정치학

11월 5일 국사·새날 여성운동모임 클럽 개장하다.

과반내의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개형태의 클럽. 파일로 올려진 발제 수가(그야
워낙 많이들 구두 발제를 했기 때문이었지만) 적다거나 세미나 후기가 올라온 적이 별로 없거나 하
는 점이 아쉽지만(평가하고 있는 스스로도 가장 쪼리는 부분 중 하나인가) 그러저럭 잘 굴러가고 있는
듯 하다.

11월 16일 2nd seminar 사랑, 연애, 결혼 (가족?)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결혼, 사랑, 그리고 성(우리시대의 문화적 각본들)

섹슈얼리티 강의 7장. 낙태 보고서 - 연애에 나타난 권력 지형도

(새 여성학 강의 8장 -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상을 알려내는 「땀들 굴리기」 거리 선전전 제안

11월 20일 세 번째 세미나 제안 자보 '여성노동을 말한다.' (by 정선)

베리리□의 일기가 나왔다. 3번째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적절히 배치해 자보로 쓴 것으로 일
기 같지는 않았지만 주의를 기울여 읽을 만한. ^.^

11월 23일 선전전 & 3rd seminar 비.정.규.직.차.별.철폐.여.성.취.업.보.장.해-

여성과 일. 1장 - 일의 의미와 여성의 정체성

여성과 일. 2장 -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

2001년 관악여모 여성노동권 워크숍 자료집

2002년 메이데이 실천단 여/성 자료집

11월 25일 '홈커밍데이, 편안하신가요?' (by 정선)

홈커밍을 즈음하여 홈커밍데이 평가 제안 자보를 냈다. 오로롱 취한 2차. 뒤늦게 온 선배의 얼굴이
비치는가하더니 얘기도 못 해본 채 아무 기억도 없이 새벽에 깨어났던 지난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군.
새내기부터 80년대 학번 선배님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어마어마한 자리. 생활공동체 학회의 미명 하에
물었던 불쾌감을 드러내고자 했던 자보 멋져요! 비록 자보로 끝나고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여
학우 모임을 잡아보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고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다음 번에 그리 끝나지 않겠지. 앞
으로는.

12월 7일 쿼어 아카이브 여학우모임 '이미지/탐폰설명서/비트윈'

홈커밍데이를 평가를 겸한 여학우모임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여 평가자
리라기보다는 즐거운 나들이였다. 라면도 맛있었고 차도 맛있었던. 영화라는 건, 아니 영화든 소설이
든 무어든 너무 완벽하게 맘에 들기보다는 비틀고 꼬집어 줄 맘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야 안주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좋은 영화는 또 좋은 거지만. '쿼어 아카이브'라는 이름 아래 상영되는 영화들이
지만 각각의 말하는 바는 각각이 다 달랐고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도 각자가 다른 감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감상. (회의적인가...)

12월 14일 4th seminar 성폭력

새 여성학 강의 7장. 성과 권력

여성과 사회 13호

12월 28일 5th seminar 포르노그래피, 새움터 일일호프

섹슈얼리티 강의 4장. 일상 생활 속의 포르노그래피 정치학

여성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11장. '목구멍 깊숙이'의 진실

1월 10일 6th seminar 성매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상을 담은 '침묵의 외침' 전시회

섹슈얼리티 강의 6장.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성매매화) 2장 성적 권력

3. 국·새날 여성운동모임(준)에서 역으로

개강 이후, 모임을 꾸렸을 때 곧바로 1학년들까지 포괄하는 정식 모임으로 꾸리지 않고 여성운동모
임(준)의 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나름의 상황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장 그때까지 과반에
서 여성주의를 풀어낼 수 있었던 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의 관점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고 그를 통해 더욱 각자가 의지를
높일 수 있길 바랐다. 또한 당장은 여성주의와 여성주의적 실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라도 여성운동모임에 가입하는 부담 없이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이 변한다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일단은 2학년 중심의 (준)모임을 꾸리고 6팀의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였
던 것이다. 사실 2학년들 모두 어디에서건 기초 세미나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주제를 정하는 것에도,
커리를 알아보는 것에도 애를 많이 먹었다. 그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 02년 4월에 처음으로
했던 만두빛기였다. 만두빛기에 찍여진 커리클럽을 중심으로 커리를 찾아 읽어보고 몇 개를 선택하고
첨가하는 식으로 커리를 정했다. 처음 세미나를 시작할 때는 오픈세미나이기 때문에 매번 세미나를 할
때마다 주제와 일시를 알리는 제안 자보를 붙이고,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는 정
리 자보를 붙이기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들의 게으름으로 정리자보는 한 번도 붙지 못하였
고 제안 자보도 <여성과 일> 세미나 때 한 번밖에 붙지 못하였다. 과반이나 동아리같은 소규모 단위에
서 오픈 세미나를 할 때 매 팀 자보를 붙이는 것은 유효할 것이다. 세미나에 오지 않는,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보를 통하여 이야기를 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여섯 팀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커뮤니티를 통하여 여성운동모임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여섯 번의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세미나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성운동모임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여성운동모임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은 모두 여성운동모임을 함께 하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 등등을 글로 적었고, 초반부터 모임을 준비했던 2학년들이 한 학기 동안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과 여성운동모임의 과반 내 위상/ 방중 계획/ 한 학기 일정 계획을 주제로 이야기 글을 준비하여 묶여 자료집을 만들어 2003년 1월 19일 MT 겸 LT를 떠났다. 그곳에서 여성운동모임(준)은(준)을 떼어버리고 '여성들의 못 다한 이야기'라는 의미의 '여담(女/餘談)'으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야기를 통하여 여담은 과반 학생회 조직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모임으로서 위상을 정하게 되었으며 학회나 소모임과는 다른 '여성운동모임'으로 정체화하게 되었다.

여담은 만두빚기의 도움으로(^^;) 이제 생긴 지 딱 1년이 된 과반 여성운동모임이다. 모임들이 언제나 새로 만들어지기는 어려우나 없어지기는 쉬운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현재 여담의 상황도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정적인 사이클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03년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문대여성모임연대(인연)와 결합하며 38 여성의 날 행사와 과반 여학생 환영제, 신입생학교 세미나, 성학교 등 3월을 활기차게 시작하였으나 오픈 세미나의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1학기 끝 혹은 여름방학에 새내기를 받기로 했던 계획이 결국 2학기 끝 무렵에서야 공청회를 거쳐 실현되었다. 이처럼 여담의 독자적인 일정 사이클이 없다보니 주로 인연 활동에 의존하는 바가 컸고 이는 다시 여담의 활동가들이 여담의 활동을 기획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 따로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인연에는 언제나 일이 있었기에(!) 주로 인연의 행사에 새날반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 치중한 것 같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운동모임이 없던 때에 과반 여성주의자 언니들이 인연 활동을 함께 하면서 그 내용들을 과반에서 풀어내는 형식으로 활동하였던 경험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반 내 여성운동모임이 없던 상황에서 몇몇 여성주의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과반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 유효하다. 그러한 경험과 고민들이 쌓였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계가 있었기에,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위태위태하나마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든 모임을 유지시키고 쉽게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화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연대체 결합을 통해 활동의 소스들을 공유하는 것과 함께 내부 사이클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여담의 과제는 새로 여담을 하게 된 03들과 함께 여담의 사이클을 정립하는 일이다.

* 결국 이고 싶은 말은, 만두빚기와 각 단대 여운단의 목은 권역여모의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시라는 말이에요. 제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어떤 모임들은 큰 힘이 되었답니다. ^^;